



윤석열 대통령,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 주재

세계적 석학들과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 우리가 나아갈 길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양자 과학기술 분야 주요 석학과 미래세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하면서,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

지난 1월 스위스 연방공대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 '대한민국 퀀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대화는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양자 석학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육성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퀀텀 전문가, 법률·회계·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물리 공간인 퀀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퀀텀 기술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난 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디지털 윤리 원칙 및 규범이 퀀텀기술에

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 종료 후 윤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2023 퀀텀코리아 행사에 전시되어 있는 양자컴퓨터 모형, 양자센서를 활용한 뇌자도 측정장비 등을 둘러보며 양자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대화에서는 양자 얽힘 실험을 통해 벨 부등식이 위반됨을 확인하여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 박사(제이에프 클라우저 앤 어소시에이션), 최초로 양자 암호 시스템을 구축, 올프상과 브레이크스루상을 연달아 수상한 찰스 베넷 박사(IBM), 53큐비트 양자 프로세서로 양자 우위를 최초로 입증한 존 마르티니스 교수(UC 산타 바바라), 홀볼트상 수상자로 지난 스위스 공과대학 양자석학과의 대화에도 참여한 바 있는 김명식 교수(영 임페리얼 칼리지), 나스닥 상장기업인 IonQ 공동 창업자인 김경성 교수(美 듀크대), 양자 컴퓨터의 정확도와 신뢰성 검증 방법 개발하여 Nature지와 사이언스지에 동시에 논문을 게재한 최순원 교수(MIT), 계

산오류를 줄인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 능가함을 입증하여 Nature지 6월호 표지를 장식한 김영석 박사(IBM) 등 양자과학기술을 대표하는 7명의 석학들과,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양자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20명, 젊은 연구자 7명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3판교에 팹리스 집적단지 조성 추진.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위해 힘 보태겠다"

김동연 지사,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위한 3판교 팹리스 집적단지 조성 계획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팹리스 집적단지를 조성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용인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에서 부족한 부분이 팹리스다. 경기도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팹리스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그곳에 팹리스와 관련된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3판교 이외에도 경기도 여러 곳에서 이런 팹리스 및 전후방 산업 집적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내 팹리스 기업 144개 사 가운데 51%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팹리스 산업을 집중 유치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

단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원활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용수나 전력 등 기반 시설 설치 시 최선을 다해 기초자치단체 간 현안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력 양성은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다. 경기도가 여러 가지 대학과 또 공공기관, 산학과 같이 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력 조달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용인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을 710만㎡ 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이곳에 구축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서울시, 성수전략지구 '한강과 연결된 수변문화 주거단지'로 재탄생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마련... 지정 이후 12년 만에 재개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개 재개발 구역 중 장기간 멈춰있었던 성수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재개된다. 시는 한강과 직접 연결되는 공원을 품은 수변친화 주거 단지로 조성, '정원도시 서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강변을 주거공간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공유하는 '수변친화 감성 주거단지'를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온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근 정책·제도 반영하여 각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 4개 지구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지정된 5개 전략정비구역 중 유일하게 유지됐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당초 정비계획 상 대상지가 4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았던 데다 지역 내 이해관계, 정책·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있었다.

이번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은 강변북로로 가로막혀 있었던 대지여건을 개선해 걸어서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휴식·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비계획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포함됐다.

시는 한강변을 공유하는 '열린 수변친화 감성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복합적인 토지 이용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한강과 연결된 수변친화단지 구현 ▲조화로운 경관 창출, 네 가지 측면의 계획 원칙을 담았다.

우선 '성수역-한강 연결축'에 상업·업무·여가 기능, '서울숲-한강-독섬 연계축'에 선형공원 및 수변공원, '기존 시가지 연계축'인 독섬로변으로 주요 공공서비스 기능을 배치, 토지를 역할과 기능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당초 정비계획('11) 대비 획지면적은 약 5만㎡ 확대하고 순부담률은 약 10% 축소하는 한편 세대수는 기존 계획했던 세대수보다 약 9% 이상이 늘려 사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한강변 개방·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다음으로, 대상지 전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스러운 한강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 내부에 입체데크를 조

성하고, 단지를 중앙집중형으로 배치하여 가로변 개방감과 한강조망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다.

단지 내부에 입체데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데크 면적이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돼 개발 가능 공간이 크게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에 데크, 하부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안)에서는 기존에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로 규제했던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여 유연한 높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로 수변공원은 강변북로 보다 높게 입체적으로 조성하여 대상지의 입지적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단지와 연결된 '새로운 석양 명소'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수변공원은 한강과의 단차를 극복하면서 도로 소음을 완충하는 방음벽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매력적인 경관과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변북로 및 강변둘레길 상부를 공원·주차장 등 시설과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연결·엘리베이터·공공보행도로 등 다양한 접근시설도 계획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들여오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제현상공모 등을 거쳐 한강과 어울리면서도 수변을 적극 이용 및 활용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혁신적 수상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리듬감 있는 물결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한강 조망 세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변 및 지구통경축(4개 축) 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점층형 경관'을 유도했다.

한강 남단에서 성수 지역을 바라볼 때, 시선이 한강에서부터 주거단지로 이르기까지 다층적 경관을 볼 수 있게끔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멈춰있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마련돼 '정원도시 서울'과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연내 변경 결정이 완료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청 신도시에 '자율주행자동차'달린다!

여객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적용, 자율주행 실증 본격 추진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일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 5.)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난 1월 경북도는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최적화된 실증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가 현장실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경북도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우수한 핵심기술을 갖춘 도내 스타트업 기업 오토노머스A2Z, 연구기관이자 기술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일대학교가 참여한 산·학·연이 협력한 우수 사례다.

또 탑승객의 만족도가 높은 점과 권익사항을 바탕으로 교통 사각지대, 도내 주요 관광지(보문단지, 하회마을) 등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북도는 자율주행 기반 다양한 실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참여('23. 9월),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23. 10월)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전기버스 상시운행('24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율주행이 대표적 사례이자 가장 큰

변이 되는 기술"이라며, "향후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고창 도계-장성' 국지도 개통

인적·물적 교류 활발...두 지역 상생·동반성장 계기 마련

전라남도는 장성과 전북 고창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의 시설개량공사를 마무리하고 27일 개통식을 통해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통행시간이 11분에서 6분으로 5분 단축돼 두 지역을 오가는 화물차량의 물류비 절감 등 직접적 경제적 효과가 크고 인적·물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져 장성과 고창 두 지역이 공동체로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개통식은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중 장성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정철·김희식·박현숙 전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장성·고창군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사 추진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도계-장성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전북 고창을 석정리에서 장성 북이면 달성리까지 총연장 5.97km 구간을 2018년 1월 착공해 총사업비 449억원을 들여 6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기존 도로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도 구불구불해 평소 사고 발생 위험은 물론 교통 불편이 큰 구간이었다. 석정터널

등 터널 2개소와 교량 2개소를 신설한 도로 직선화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문금주 부지사는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개통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개통한 '도계-석정간 국지도'와 함께 장성·고창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북도의회 道농수산위원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찾 아비규격돈 도축시설 점검

대구도축장 폐쇄 대비 현지 확인.
철저한 사전준비 당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 종료 직후 고령축산물공판장을 찾아 대구도축장 폐쇄에 대비한 비규격돈 도축시설을 점검했다.

대구시가 내년 3월 축산물도매시장 도축시설 폐쇄를 발표함에 따라 도내에서 모든 등 비규격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도축시설이 유일하다. 하지만 현재 처리수준이 일 최대 50여 두에 불과해 대구도축장이 폐쇄될 경우 경북 양돈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안동시에 건설 예정인 안동축산물유통센터에 비규격돈 도축시설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완공은 빨라도 2024년 말에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양돈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점검을 마친 농수산위원들은 “안전하게 도축시설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하면서 함께 배석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에게 “고령도축장의 비규격돈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동축산물유통센터 준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그간 대구경북 양돈농가의 비규격돈 처리에 큰 몫을 담당해 온 대구도축장이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함께 자라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회장 문병근 의원)는 27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과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과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기도 내 분야별 세출의 특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문병근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지난 3개월 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차상권 연구위원(사단법인 한국기업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구를 서울시와 비교·분석하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차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 담보를 위한 미래전략, 발의될 조례에 대한 사전 비용추계제도 도입, 중앙·지방 간 세출·세입 권한의 비대칭성 완화, 예산편성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불용액이 높은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대학교 천원의 방상 등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식단의 충분한 영양상태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실제 수요자 등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세입·세출분석 결과 서울시 사업수가 적은 이유는 중복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의 단위 사업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회장은 “지방재정 사용 등에 따른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논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첫 출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항소음 문제 공동 대응과 적극적 대책 모색을 위해 지난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제안으로 가결됐다.

이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제주도의회 김항국 부의장(국민의힘) 이 참석했다.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의원은 전국시·도 의회에서 추천한 13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원장으로 제주도의회 김항국 부의장이 선출됐다.

권역별 부위원장으로 수도권 홍원길 의원, 충청권 안경자 의원, 호남권 최 무경 의

원, 영남권 박소영 의원이 선출되어 각 권역별 연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항국 의원장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3년 소음 등고선 재고시에 따른 피해 문제와 처리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지속적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확대 발전시켜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에 대한 감격스러운 소감과 그동안 소외됐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고충을 토론했으며 공항소음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우형찬 부의장은 향후 공항소음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과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 논의

추진단 구성 및 1차 회의 통해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과제 토론

충남도의회는 27일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자치분권 실질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소위원장인 이지운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과 함께,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선문대 김재광 법경찰학과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선기 선임연구원, 공주대 이정만 행정학과 교수, 충남연구원 고승희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추진단의 자치분권 강화 과제 발표 및 종합토

론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위한 ‘의회협력의법’ 제정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마련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추진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전문기관 자문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거쳐 대정부 건의안 제출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상추가공식품 수출상차식’서 수출 경쟁력 향상 주문

수출품목 지속 발굴·육성으로 전남산 우수 농식품 해외시장 확대에 힘써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26일 동향평 일반산업단지 내 스마트유통시설 천지운에서 열린 ‘기능성 상추 흑하랑 가공제품 첫 수출 상차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가 품종을 육성한 기능성 상추 ‘흑하랑’ 가공제품의 첫 수출을 기념하고 수출 확대를 응원하는 행사로 티백차(1천통), 젤리스틱(2천박스), SD분말 등 총 3종, 3천 8백만 원을 일본(CROSSHI)에 수출하기 위한 상차식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흑하랑은 일반 상추에 비해 락투신이 124배가 높아 일명 ‘잠잠 상추’로 불리며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세계인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다”며 “오늘 약 2조 원 규모의 수출용품

세계 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산 제품들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전남산 원료기반구축, ▲FDA 승인 및 해외 출원, ▲국가별 유통 전략수립, ▲수출 다변화 및 시장개척 홍보 마케팅 등 관련 예산 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기원에서 앞장서 전남 농식품이 세계로 뻗어 나가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농업기술원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서도 신기술 국제교류 예산 증액 등 전남산 우수 농수산식품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박종배/기자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공직자와 환담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6월 27일 아프리카 3개국 고위공직자를 시의회로 초대해 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환담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한 아프리카 3개국 고위공직자는 케냐 공공서비스부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잠비아 공무원관리부(Public Service Management Division), 잠비아 청소년체육예술부(Ministry of Youth, Sport and Art), 레소토 공공서비스부(Ministry of Public Service) 등 총12명이다.

시의회에서는 김기정 의장과 문화체육

교육위원회 환경한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기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자국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시와 협력하여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정민,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광고국: 1899.9659, 정치부: 내선 (112), 사회부: 내선 (113), 경제부: 내선 (114), 스포츠부: 내선 (115), 문화부: 내선 (116), 부동선부: 내선 (117), 오피니언부: 내선 (118),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빌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 유일 여권전담부서 신설한 송파구, '여권발급 수수료 현실화' 외교부에 정식 건의!

송파구, 코로나19 방역완화 이후 여권업무 폭증 예상해 지난해 10월 전국 유일 '여권과' 신설

송파구가 외교부 대행사무인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여권발급 수수료를 확대와 국고보조금 증액 등을 정식으로 외교부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현장에서 소요되는 여권발급 대행비용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여권법 개정 이후 11년간 지자체에 주어지는 대행수수료는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58명 여권을 발급하려면 5만 3천 원을 내야한다. 이 가운데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3만 8,000원을 가지고 외교부와 발급대행기관인 자치구가 78대22의 비율로 나눈다. 여권처리 1건 당 외교부가 2만 9,640원, 자치구가 8,360원을 받는 셈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송파구 여권 수입금액은 2억9천7백여만 원이다. 그러나 여권업무 대행으로 인해 지출되는 인건비, 기타 운영비는 동기간 기준 4억 6천여만 원으로 여권발급 수입액 보전율은 64.6%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손실을 모두 메우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구는 외교부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를 확대(22%→30%) 및 국제교류기여금 징수교부금 신설(5% 내외) ▲ 발급건수에 따른 국

고보조금 증액 ▲특정업무수행경비(수당) 신설 ▲민원서비스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다.

특히, 구는 여권발급을 위해 전국 유일 '과' 단위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여권 발급 민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전국 최초로 여권과를 별도 신설했다. 여권과가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을 확대 운영해 동선을 간소화하고, 인력을 충원 배치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요구 사항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 타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도록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국가사무를 맡으면서, 지자체가 오히려 재정을 보는 일만 있어야 한다."며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현실화를 적극 주장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금천구, 타사·도 초·중고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 지원한다



금천구 주민 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지 못 타사·도 학교 입학생 대상

금천구는 서울시 외 타 시·도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금천구 신입생 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이란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복, 학습용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연초에 서울시 소재 모든 학교에서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서울시 외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않는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금천구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금천구 학생이라면 빠짐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금천

구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외국인의 경우 금천구를 체류지로 정한 2023학년도 신입생이다. 단, 이 중 입학준비금과 같은 성격의 지원금을 이미 받은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구청 교육지원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지과 중복지원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성북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성북지점 온누리상품권 5백만원 기부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500만원어치 쾌척



서울 성북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성북지점(지점장이 성래)에서 지난 23일에 저소득 취약계층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북구 길음2동에 소재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성북지점에서는 올해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돼 저소득 취약계층 이웃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성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성북지점장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

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래 성북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후원을 해주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성북지점에 감사드립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성북지점은 소외계층 소외기 지원, 어르신 행복나들이 지원, 복지관 봉사, 환경캠페인, 무료 노래교실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성원기자



서울 중구 초등방과후학교 만족도는 최고, 비용은 제로

예제능·과학·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개수 무제한, 무료로 수강 가능

서울 중구가 지원하는 관내 공립초의 '방과후학교' 1분기 만족도가 94%로 나타났다. 관내 공립초 8개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작년 평균 대비 5% 상승한 결과다.

'중구 초등방과후학교'는 구와 공립초등학교의 새로운 초등 교육지원 협력 모델이다. 학교별 특색성을 반영한 특기 적성 및 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관내 공립초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 구는 관내 공립초등학교와 위탁 협약을 맺고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했다. 그러나 개별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시스템이라는 한계에 직면하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없게 됐다. 교육 전문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방과후학교를 전담함에 따라 발생했던 운영상의 한계였다.

따라서 구는 만족도가 좋았던 수강료 무료, 간편한 온라인 수강신청, 출결관리 서비스 등은 유지하면서도 학교별 특색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쳤다. 올해부터 '운영은 학교에서 직접 하고, 구는 학교별 수요에 맞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기존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성원기자

맛별이 가정이 많아 방과후학교 의존도가 높은 △남산초에는 '원어민영어, 수학, 예체능 프로그램'을 총총히 구성했다. △봉래초와 △청구초에는 사교육에서도 고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로봇, 입체과학,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당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좌'를 통해 최근 초등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했다. △충무초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융합활동 '메타스쿨' 강좌를 신설했다.

학부모들은 '강사와의 원활한 피드백', '단계별 분반 운영' 및 '평소 듣고 싶었던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사립초 추천에 떨어져 공립초에 오게 됐는데 방과후학교 시스템이 매우 좋아 국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신뢰가 생겼다"라며 "구의 전폭적인 초등교육 지원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다소 획일적일 수 있는 공교육 정책을 보완하려면 연령별, 시기별로 다양한 교육 수요와 학교별 특색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한계는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지역 발전 위해 구정에 대한 주민 관심 높인다

민선 8기 1년 맞아 현안사업 설명회 열고 주민들과 소통

서대문구가 27일 오전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일반 주민과 통반장, 직능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선 8기 1년간의 구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구정에 대한 주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현 구정장은 이날 '도약을 준비한 1년, 변화와 혁신을 위한 3년'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 교육문화 포털, 평생동행 인생케어, 서울의 중심 도시, 주거 일등 도시 구현을 위한 3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밝혔다.

또한 올해 중점 추진하는 권역별 지역개발, 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 선진형 복지체계 구축, 대내외 소통 행정 확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구정장은 지난 1년간의 아쉬움으로 기초 지자체 권한의 한계, 사업 완성을 위한 시간적 한계, 모든 주민의 의견 수렴 한계 등을 들었다.

아울러 이러한 어려움을 정부 및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 더욱 꾸준하고 확실한



사업 추진, 갈등 해소를 위한 더 많은 노력 등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3년간의 역점 사업으로 4대 상권별 권역별 브랜드 강화, 신속한 지역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문화거점 신대학로 조성, 인생케어 마스터플랜 추진 등을 꼽은

자문위원회가 민선 8기 1년간 '지역 현안과 상시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서대문형 맞춤형 인생케어 서비스 체계화', '장기적인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긍정 평가하고 '서대문 브랜드 평판 제고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울러 (주)리서치앤리서치가 서대문구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6.14.~6.19.) 결과도 발표됐는데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67%였다.

주요 사업 만족도는 신촌 이대 상권 활성화(경제), 진로진학센터 교육지원(교육문화), 맞춤형 인생케어서비스(복지),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추진(도시개발), 연세로 차량통행(주거환경)이 분야별로 가장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 주민 만족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민선 8기 1년간 가장 만족하는 구정 분야는 녹지/환경, 복지/보건, 문화/체육, 앞으로 가장 역점 추진해야 할 분야는 경제/일자리, 복지/보건, 도시개발/주택순이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서대문구 정책

강성원기자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 보훈가족에 고기 나눔

서울 성동구가 지난 15일 성동구 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고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마장축산물시장으로 보훈 가족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를 대접해온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임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보훈회관에서 고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훈가족 초청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국가 유공자분들이 고

기를 나눔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100kg의 고기를 더 준비했으며, 개별 포장된 시간대별로 보훈 대상자 방문 시간을 나누어 돼지고기 1팩씩을 배부했다.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박재홍 이사장은 "올해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매년 이렇게 잊지 않고 행사를 개최해 주신 이사장님 이

하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 진흥협동조합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성동구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기도, 제3차 경기도공공보건의료포럼... “건강한경기도! 건강한노인”

경기도, 27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2023년 제3차 공공보건의료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27일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2023년 제3차 공공보건의료포럼’을 열고 코로나19 대응관련 직원을 포상하고 건강한 노년 건강관리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조수남 경기도 감염병분석팀장이 지난 3년 5개월간의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정리한 ‘경기도 보건의료부문 코로나19 대응기록’을 발표했다. 조 팀장은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부문별로 소개하고, 도·보건소·의료기관·지역사회·가족·시민·노년층의 혼련된 조직·인력·거버넌스 유

지 통해 평상시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와 관계기관 공동전략 및 훈련·정례화를 중심으로 향후 미래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응기록은 경기도 및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 1월 26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크게 6차례의 대유행이 발생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만 4천 명, 2021년 17만 명, 2022년 768만 명, 2023년 80만 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867만

1천237명(6월 21일 기준)이다. 이는 전체 경기도민의 64.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방역·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헌신한 의료인 등 민간인과 공무원 11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검은백조(Black Swan)’였다면 고령화 시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모수를 찾기 어려운 ‘회색 코뿔소(Gray Rhino)”라며 “오늘 포럼 주제인 고령

화 시대를 대비해 시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과 함께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최중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의 노화를 늦추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며 “이 시대의 중요 정책과제인 고령화 대책을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2부에서는 ‘건강한 경기도! 건강한 노인’이라는 주제로 보건 의료 이슈에 대한 발제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느리게 나이 드는 충만한 삶 디자인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는 의료 이용의 수동적 대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고령화 야기되는 다양한 보건 의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다차원의 전략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와 주민, 전문가, 의료공급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최만식/기자

주민과 함께한 ‘제9대 양평군의회 개원 1주년’

현장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7인의 군의원이
주민과 함께 양평의 내일을 그려 나간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뜻으로 선택된 양평군의회는 2022년 7월 1일 개원식과 함께, 제28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하고(의장 윤순옥, 부의장 황선호), 주민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로 소통을 통한 신뢰강화, 균형과 협력을 통한 발전 가속화,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 차별화된 정책 제안을 비전으로 삼아 주민들의 성실한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는 1년을 보냈다.

지난 1년간 양평군의회는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 등 총 9회의 회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며 주민의 생활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도록 가장 큰 안건을 맞췄으며,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제9대 양평군의회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 대안 개발, 의원별 담당 분야 지역 지정과 의원 역량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군민 행복 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각적이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정 행보를 펼쳐가고 있다.

■ 양평의 청사진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에서는 주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주제를 선정,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매년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해나가고 있다.

2022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와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를, 2023년도에는 양평군 희망발전 연구회와 양평군 재정진단 연구회를 구성해 깊이 있는 연구를 펼치고 있다.

또한, 매년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 의정을 실천하는 양평군의회

주민의 뜻을 실천하는 양평군의회는 전문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별로 담당 분야와 지역을 지정해 전문적인 의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의 요구와 목소리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1명의 의원이 모든 분야를 담당하기 어려워 문화, 복지, 도시, 환경, 경제 등의 업무를 각 의원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깊이 있는 정책 대안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제나 주민의 요구 목소리에 의회가 필요한 사안에는 발 빠르게 효과적인 대처를 보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설치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발 먼저,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어려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 나눔과 비용으로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양평군의회

지난해 여름은 이례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했다. 양평군에도 예외 없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수해 현장을 확인하고, 강하면 침수 가구를 찾아가 토사를 치우는 등 복구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에서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양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도 했다.

수해뿐만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언제나 양평군의회가 있었다.

양동면 양동 농가 화재 현장, 공군 제8145 부대 위문, 이태원 사고 희생자 추모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해 지역 곳곳을 다니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귀담으며 의정활동을 채워 나갔다.

뿐만 아니라, 적십자 특별비비 전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전달 등 나눔활동도 이어갔다.

이와 함께 군의회에서는 해외 의정연수를 취소하며 비용을 실천하기도 했다.

난방비 폭등, 물가상승 등으로 주민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양평군의회는 민생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의원들이 뜻을 모아 올해 해외 의정연수를 취소했다.

■ 지방의회 독립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양평군의회

2022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주권의 구현과 자치단체 역량강화, 그리고 자치권의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방의회도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자치권이 확대됐다.

이에 발맞추어 양평군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을 임용해 의정활동에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인사권 독립 후 홍보정책팀을 신설하고, 승진 등 자체적인 인사발령을 통해 조직을 체계화하고 기틀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준비를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

■ 소통과 협치로 함께 걸어가는 양평군의회

견제와 균형이 기본원리인 지방자치제도에 맞게 주민의 대의기관인 양평군의회에서는 다양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함께 호흡하고 있다.

지난 8월 집행기관과의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협의회 6회 등 다양한 소통의 방법으로 군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동부권 등 다른 시군 의회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폭넓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양평군의회에서는 올바르게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의 3년을 그려나가고 있다.

윤순옥 의장은 “지난 1년간 주민의 곁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됐다”며,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으로 군의회가 한발 더 성장해나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3년, 군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데 있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더욱더 내실 있게 채워가고, 넘쳐난 관심과 사랑은 겸손으로 보답 드리겠다”고 했다.

이상용/기자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경찰서와 실무간담회 개최

시민 주도 ‘안양형 여성친화도시’ 추진...치안 불안 요인·개선안 토의

안양시가 2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및 안양만안·동안경찰서와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5월 누구나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 안전사업 부서, 경찰서, 시민참여단, 만안·동안자율방범대, 도시공간 젠더전문가 등으로 여성안전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실무간담회는 여성안전실무협의체가 시민참여단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양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안양만안경찰서·동안경찰서 생활안전 담당자, 시 여성친화도시 담당자는

시민참여단에게 관내 여성안심귀갓길 및 각종 방범시설 현황, 순찰신문고 앱을 설명하고, 시민참여단은 이를 바탕으로 안전 저해 요인, 치안 불안 요인과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실무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참여단 외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 사항을 반영해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 및 ‘안양형 여성친화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현재 40명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은 정책은 물론 지역 공간 및 시설물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해 개선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공과금 확보를 위한 홍보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신유용/기자



2023년 평택시 사회복지사 비타민캠프, ‘꽃보다 사회복지사’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3박 5일간 사회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요구받는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와 소진을 예방을 위한 매년 비타민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크지만 본인의 마음건강 관리를 받지 못해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회복지현장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작년 제주도 비타민 캠프에 이어 평택시 관내 사회복지사 25명을 선발하여 라오스로 떠나는 3박5일의 첫 해외비타민 캠프를 진행했다.

“사회복지 후원 모금과 조직관리” 역량강화특강을 시작으로 라오스의 주요관광지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하며 현장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되어 심을 갖는 힐링의 시간을 통하여 사기 진작 및 상호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구축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출발에 앞서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업무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평택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 공무원들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주 회장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비타민캠프가 사회복지사들의 심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예산의 문제로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쉽고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 비타민캠프를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현장 복귀해서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님들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협회는 사회복지사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함께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는 “함께하는 가치, 같이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유대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단체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사회복지사 자기역량 개발비, 건강검진지원, 사무국 상근화, 비타민캠프, 역량교육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강성원/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다보스포럼에서 친환경 도시 조성 사례 국제사회에 알리

환경 친화 도시의 성장 주제로 세션 토론회 참가, 국제 전문가들과 토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천의 친환경 도시 조성 사례를 널리 알렸다.

인천광역시장은 유정복 시장이 6월 27일 덴마크 메이장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세션에 '환경 친화 도시의 성장'을 주제로 토론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앞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인사들을 만나 국제도시 인천의 장점을 역설한데 이어, 토론회에도 참석해 국제사회에 인천의 위상을 알렸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포럼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하게 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미콜라이 세쿠토티츠 테레메그를 창립자-임팩트원 CEO, 코차코르 보라이콤 태국 랜드프렌스 CEO, 슈에메이 바이 호주국립대학 도시환경-인간생태계학과 석좌교수 등 4명이 참가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기후변화와 도시 개발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보다 5년 앞당긴 2045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교통수단 지원 등 그린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갯벌보호, 나무심기, 도시 숲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지난 2021년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복원력 허브 인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바다, 갯벌, 섬을 비롯해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등 소중한 거대한 자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



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파괴가 아닌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가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은 높은 빌딩이나 첨단산업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 친환경이면서 환경보호를 넘어 자연환경 재생산의 개념을 함께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저는 광명시 통장입니다"… 광명시, 18개 동 통장 409명에 통장증 발급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 펼쳐 행정 신뢰도 높일 것으로 기대

광명시는 지역에서 주민과 교류하며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8개 동 통장 409명에게 통장증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통장협의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민방위 통지서 전달 및 각종 행정 사항 전달로 세대를 방문할 때 통장이라고 알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애로사항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통장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통장증을 발급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통장증은 앞면에 사진과 성명을 기재하여 신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

고, 뒷면에는 통장의 신상 정보와 함께 관할 동의 통장 직인과 담당 공무원 연락처를 표시해 공신력을 높였다.

광명3동의 한 통장은 "앞으로 가정을 방문할 때 공인된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어 현장에서 통장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의 자긍심이 높아져 주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통장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담은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여 통장들이 핵심적인 지역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수원시립미술관, 실감 콘텐츠 '생생(生生) 나혜석' AR · VR 체험존 운영

'나혜석' 주제 실감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및 사전 예약 실시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은 수원의 대표 인물인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을 주제로 한 '생생(生生) 나혜석 실감 콘텐츠'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운영하며 사전 참여자 예약을 진행한다. '생생(生生) 나혜석 실감 콘텐츠'는 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 스마트 박물관 · 미술관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2월부터 시작해 1년 5개월에 걸쳐 기획, 제작됐다.

'생생(生生) 나혜석 실감 콘텐츠'는 수원시립미술관 2층 전시홀에 VR 체험존과 나혜석 홀의 AR 전시해설 두 가지로 운영된다.

VR 체험은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 콘텐츠를 관람객이 VR 기기를 착용해 가상의 화면을 바라보고, 컨트롤러를 이용해 움직임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 '나혜석을 만나다'에서는 나혜석의 주요 작품을 통해

나혜석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 '나혜석 시대를 만나다'는 신여성으로 여성 인권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나혜석의 주요 관화 작품을 통해 당시 여성상에 대해 체험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나혜석 작품을 만나다'에서는 나혜석이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특선 및 일본 제정 입선 작품인 '정원' 속으로 직접 들어가 색을 칠하며 나혜석 작품을 나만의 것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VR과 함께 수원시립미술관 2층 나혜석홀에서 운영되는 AR 전시해설은 나혜석의 삶 전반과 이번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담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이

소장 중인 나혜석 작품 '자화상', '김우영 초상', '나부', '염노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또한 나혜석의 유족으로부터 받은 나혜석 사진첩을 활용한 콘텐츠와 다양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수원의 대표 인물이자 한국미술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최초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의 삶을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로 제작됐다. 이 콘텐츠를 통해 많은 이들이 '나혜석'이라는 인물과 주요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 제작됐다.

'생생(生生) 나혜석 VR 체험 이용 방법은 수원시립미술관 누리집 '생생(生生) 나혜석 실감콘텐츠 VR 체험' 사전 예약 메뉴를 통해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정해진 예약 일자에 수원시립미술관 2층 VR 체험존을 방문하면 전문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7월 4일부터 일반 운영된다.

수원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생생(生生) 나혜석 실감콘텐츠'는 참여자가 직접 체험하고 전시할 수 있는 열린 디지털 체험 활동으로 기존의 체험 방식과 차별화된 스마트 미술관 서비스를 지향한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더 가까이' 시민과 함께 교통봉사, 청년소통 등 민생행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더 가까이 시민에게 다가서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6일,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한 지난 1년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3년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담아 시민이 맘 흘려 일하는 일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민생행정을 추진했다.

이날 김경일 시장은 첫 민생행보로 오전 8시에 해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들과 함께 교통봉사에 나섰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 빗길 교통안전지도를 한 김경일 시장은 이후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각종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김경일 시장은 "오늘 학부모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잘 살펴

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소중한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전 11시에는 광탄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광탄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배달 봉사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어르신들이 이번 여름에도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오후에는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공사 현장과 선유지구 급경사지를 연이어 방문하고 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와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

부했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작년에도 호우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김경일 시장은 청년공간 GP1934를 찾아 지난 1년간 파주시 청년정책 참여자들의 소감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그동안 보고 느꼈던 소감을 말하며, 공공시설의 예약장 무료대관, 다양한 청년동아리 지원, 파주시 캐릭터 파랑이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청년계층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오늘 나온 제안들을 잘 살펴 시정에 잘 접목시키겠다"라며,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민생현장을 다니며 시민과 함께 맘 흘린 김경일 시장은 민생행정 일정을 마치며 "민선 8기 1년을 함께 해주신 51만 파주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며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평화경제특구 지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조기 개통,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 등을 통해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1년 동안 시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을 드리는 여러 정책을 펼쳐올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듯, 앞으로도 더 가까이 시민에게 다가서, 누구나 부러워하고 살기 원하는 파주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용인특례시, 반도체 경쟁력강화위 워크숍 열고 정책토론

'나혜석' 주제 실감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및 사전 예약 실시

용인특례시가 지난 26일 처인구 모현읍 용인산림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동위원장인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박재근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민간위

원장, 산·학·관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형 인재 육성 방안 등 시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책분과, 기업지원분과, 인재양성분과, 인프라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눠 분야별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정책분과에서 박재근 공동위원장은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원분과에서 강성철 부위원장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연구 중심의 산·학·관 허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상진 위원은 인재양성분과에서 "현재 백업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교사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탁 위원은 인프라분과에서 "'L자형 반도체벨트'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에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소부장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각 분과에서 제안한 의견을 향후 시의 반도체 정책 수립 단계에 적극 반영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말 경기도 최초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난 2월 반도체산업 육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정책 자문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강화군, 장마철 고추 탄저병 방제 철저 당부

강화군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탄저병, 청고병 등 고추 병해충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고추 탄저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6월 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장마기와 8~9월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급속히 증가한다. 과실에 직접 피해를 주어 수확량의 20~60%가 감소하게 되어 큰 손실이 발생한다.

탄저병은 병원균의 99%가 빗물에 의해 전파됨에 따라 장마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병원균에 감염된 과실은 초기에 연녹색 기름방울 같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둥근 껍투니로 확대되어 심하면 비틀어지고 말라버린다.

초기에 탄저병에 감염된 열매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병든 과실을 그냥 두거나 이랑에 버려두면 2차 감염을 일으켜 방제효과를 50% 감소시킨다.

탄저병 방제는 보통 비가 오기 전과 후에 약제를 잎과 열매에 골고루 묻도록 살포해야 한다. 고추 탄저병에 등록된 약제는 '보호용 살균제'와 '치료용 살

균제'로 구분한다.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표시기호(코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보호용 살균제는 주로 '차, 카', 치료용 살균제는 '다3, 사1'로 표시되어 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병 발생 전에는 보호용 살균제(차, 카)를 사용 ▲7월 이후 초기 병 발생기에는 치료용 살균제(다3, 사1)를 사용 ▲8~9월 수

확기에는 보호용 살균제와 치료용 살균제를 혼합해 방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추 탄저병은 꼼꼼한 예찰을 통한 초기 발견과 농약살포 효과가 높은 최적기에 적정 농약을 선택해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적정 약제 방제방법을 사용해 효과를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원장과 위원 등 2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위원들에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진행 상황과 반도체 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방안, 반도체 기업 R&D 사업 지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략을 추가해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 맞는 추진전략을 민첩하게 재설정하면서 정책분과가 반도체 관련 사업

‘민선8기 경상북도 1년의 성과와 미래’정책 포럼 개최

패러다임 변화로 지방이 주도하는 완전한 지방시대 완성

경북도는 27일 도청 화백당에서 ‘민선8기 1년의 성과와 경상북도의 미래’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상상력, 경북 사피엔스(Sapiens)”라는 주제로 민선8기 1년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3년 도정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북도는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2023년 화두로 삼아 도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경북도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안된 정책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정책 포럼 역시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상상력을 모으려는 취지에서 개최했다.

정책 포럼은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중앙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前국무조정실장), 유인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前국정기획수석), 행정과 정치 두 영역에서 활동한 정태욱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前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협력담당(전무)이 참석했으며, 학계에서는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성수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가 자리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 행정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인사로 구성해 이론과 현실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가 됐다.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생태계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포스코의 벤처 생태계 전략을 사례로 제시하며, 산학연 기반 벤처 생태계 구축 전략을 소개했다.

미래 신사업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이 연계한 벤처생태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김현호 박사와 김성수 교수의 토론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성에 지방 정주여건 개선, 벤처펀드 조성, 전략 산업 육성 등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에서 유인봉 사무총장은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현행 중앙부처(공급자) 주도의 하향식 (Top-Down) 운영방식에서 지방정부(수요자)중심의 상향식 (Bottom-Up)방식으로 변화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

했다.

이에 대한 정태욱 원장과 이덕로 교수의 토론에서 재정자주권 강화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세부 방향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년간 변화와 혁신으로 성과도 많았지만, 더 큰 미래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는 정책 발굴과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우

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지방시대를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최만식/기자



영주시, 베어링산업 중심도시 영주 k-베어링을 세계로 이끈다

‘베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최

베어링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영주시가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와 영주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민주진위원회 주관으로 ‘베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베어링 관련 130여 개 기업, 연구소, 대학과 영주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관계자 360여 명이 참석해 베어링의 기술개발과 최신 동향에 대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 1일차인 28일에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사업 △베어링산업 기술개발 동향 △베어링 산업 장비분야 추진방향 소개로 진행됐다. 29일에는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의 장비활용 개발상담과 기업간 교류의 시간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주시와 (주)코나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베어링 산업과 트라이볼로지 기술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기술개발 및 베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에 큰 힘을 보탤다.

승호연 영주시장은 “산·학·연 연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베어링 산업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활로를 개척해 나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베어링산업 인프라 확충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영주시가 K-베어링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영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25년 까지 총사업비 226억 원으로 베어링 제조기술센터를 건립하고 베어링 제품의 설계부터 성능평가에 이어 제품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주기적 맞춤형 기업지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영주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여억 원을 투입해 영주시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일대 118만㎡(약 36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직·간접고용 4700여 명 등 1만30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와 지역 내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켜 인구소멸도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뭉쳐야 지킨다! 환경보호 프로젝트

GB(경북)대학사회봉사단 협업 구미대, 성운대, 안동과학대 130여명 고래불해수욕장 EM홍공단지기 및 비치코밍 봉사활동 전개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올해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GB(경북)대학사회봉사단 비치코밍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구미대, 성운대, 안동과학대 대학생 130여명이 고래불해수욕장에서 바다의 수질을 개선하는 EM홍공단지기과 해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치코밍 활동을 펼쳤다.

비치코밍은 Beach(해변)과 Combing(빗질하다)의 합성어로 해변 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해변 환경정화 캠페인이며, EM홍공은 EM활성액과 황토, 발효제 등을 반죽한 후 2주간 발효시킨 것으로,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 80여 종이 들어있어 해변과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추치 및 주관기관인 경상북도와 영덕군,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영덕군종합자원봉

사센터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쓰레기가 더 이상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며 그 의미를 더했다.

권윤길 센터장은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봉사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오늘 비치코밍활동과 EM홍공단지기 활동으로 바다를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GB(경북)대학사회봉사단은 오는 7월 12일과 9월 8일에도 동해안 일대에 대대적인 비치코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영덕의 장사해수욕장과 덕천해수욕장에서 대학생과 지역의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해 계획에 있다.

장문화/기자



예천군, '반려견 등록하개' 캠페인 추진

예천군은 27일 오후 6시 호명면 송평천 산책로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등록하개’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예천군과 예천군 수의사회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반려견 등록뿐만 아니라 실의 사육견 중성화 수술 예약, 반려동물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이웃을 생각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인 펫팻을 안내해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군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반려 문화 정착과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0일 예천을 한탄 산책로에서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보 축산과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키우시

는 주민들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며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 입양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칩을 통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외장형 식별 장치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리버풀 광역도시권과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현지시각 6.27. 오전 9시 30분 리버풀 광역도시권 청사에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스티브 로더람 리버풀 광역도시권 시장 참석해 협정서에 서명



부산시는 현지시각으로 27일 오전 9시 30분 영국 리버풀 광역도시권 청사에서 비틀스가 태어난 영국의 항만도시로 잘 알려

진 리버풀 광역도시권과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버풀 광역도시권은 지난 2014년에 설

립된 영국의 도시연합체로 리버풀시를 비롯해 할튼시, 노우슬리시, 세인트헬렌시, 셰프턴시, 윌리시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지난해 스티브 로더람 리버풀 광역도시권 시장의 리버풀 광역도시권 방문 요청을 계기로, 양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력을 모아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정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최초의 리버풀 광역도시권 시장인 스티브 로더람 시장이 참석해 직접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로 양 도시는 클린에너지, 디지털(스마트 도시), 지식학협력(인적교류, 과학연구), 경제, 통상,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양 도시는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주한영국대사관의 참여 제안으로 시작된 ‘한·영 도시간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를 2025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틀즈와 축구의 도시로 잘 알려진 리버풀시를 포함한 6개 도시의 연합체인 리버풀 광역도시권과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로 우리시는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게 됐다”라며, “보건, 화학, 인공지능(AI),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리버풀 광역도시권과 세계 2위 환적화물,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한 우리시의 기술과 경험을 상호 공유해 양 도시의 상호 발전을 이루고, 도시 간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충진/기자

경주시, 시정발전에 평생 공헌한 공무원 위한 명예로운 퇴임식 가져

27일 시청 앞천홀서 퇴임식 열려... △4급 4명 △5급 7명 △6급 12명 △7급 3명 △농촌지도사 1명 △청원경찰 3명 등 총 30명

경주시가 27일 오전 앞천홀에서 2023년도 상반기 명예 퇴직자를 위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퇴직자 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퇴직자 가족 영상메시지 상영, 공로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경주시의장도 참석해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이날 명예 퇴직자는 △4급 4명 △5급 7명 △6급 12명 △7급 3명 △농촌지도사 1명 △청원경찰 3명 등 총 30명이다.

이들은 풍부한 경험과 넓은 지식으로 경주 발전을 이끌며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 온 공직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 경주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공직 내부에선 직원과의 화합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퇴직자들을 대표해 오영신 시민행정국장은 “공직생활 기간 협조해준 동료 공직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그동안 맺어온 소중한 인연의 끈을 간직한 채 경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경주 발전을 응원하고 돕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열정을 바쳐온 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퇴직 후 멋진 제2의 인생을 펼쳐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타용/기자



도움 공직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청송 들녘특구 조성사업 '발돋움' 농업대전환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개강

청송군은 6월 23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들녘특구 조성사업 발돋움을 위한 농업대전환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을 10회에 걸쳐 실시한다.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은 농지의 규모화와 2모작을 통해 토지생산성을 올리고, 기계화·자동화 첨단시설 및 로봇 도입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며 가공·체험과 연계하여 연중 고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규모화된 공동체 중심의 농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공동체 육성 의식전환, 법인설립 및 운영, 지역별 특성에 맞는 2모작 작부체계 구성, 밀·콩 재배 기술, 농업법인 세무교육, 온라인 마케팅, 농산물 판매전략과 타지역 우수공동체 견학(3회)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에 적합한 들녘단위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으로 농업 소득을 늘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공무원 미래 신기술 교육에 나선 대구광역시, 이번에는 '로봇' 특강

'대구 5대 신산업 시리즈' 제3강 로봇 교육! 혁신 교육의 장 이어 나가



대구광역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을 맞아 미래 50년을 구상할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해 '공무원 혁신역

량 교육'을 올해 처음 기획했다. 지난 3월 '도심항공교통(UAM)', 4월 '반도체', 5월 '대구국제제지컬페스티벌(DIMF)' 특별 강연에 이어 6월은 '로봇'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강연은 국내 최초 인간형 로봇 휴보(HUBO)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준호 KAIST 명예교수를 초빙해 '로봇 선도도시 대구에서 만나는 로봇의 서비스'를 주제로 6월 28일 오후 4시 30분에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대구광역시는 5대 신산업의 하나로 로봇을 선정하고, 로봇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

특구 추진, 다중이용시설 서비스로봇 실증 및 보급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로봇 기술과 산업의 변화 흐름을 읽고 서비스로봇 산업분야로 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마련했다.

수요대석회로 명명한 공무원 혁신역량 교육은 매달 수요일 다양한 주제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3차례 특강은 7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대구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

심항공교통(UAM), 반도체, 대구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키웠다.

앞으로 9월은 ABB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10월은 역사 속 인물을 통한 적극행정 혁신사례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로봇 기술과 미래 산업의 최신 동향을 접함으로써 최근 급성장 추세인 서비스로봇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경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 등 업무협약

관광도시 문경, 탁구의 고장 & 스포츠 도시로 탈바꿈

문경시는 6월 27일 문경시청에서 '제5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 및 '제3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분담과 협력 사항 등을 내용으로 문경시와 대한탁구협회, 문경시체육회 3자 간에 이뤄졌으며, 대한민국 탁구계의 전설인 유승민 IOC 위원 겸 대한탁구협회장, 김택수 대한탁구협회 실무부회장 등이 대한탁구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제5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 탁구대회와 제30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는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문경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와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대한민국 탁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유승민 회장님과 김택수 부회장님, 두 분을 모시고 뜻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며 "대회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문경시는 올해 아시아하키연맹 정기총회 및 8개국 초청 국제대학 배구대회, 45개의 전국 단위 체육대회 등 총 73개의 체육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 넘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자율방범대연합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영양군지구협의회 양수발전소 유치 기원 릴레이 캠페인"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는 28일 오전 영양읍 법원사거리에서 영양군자율방범대연합회 및 대한적십자봉사회 영양군지구협의회와 함께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기원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양봉철 상임의장, 오도창 영양군수, 범군민 유치위 소속 위원장단 및 집행위원, 영양군 자율방범대연합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영양군지구협의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영

양군당원협의회와 영양군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공동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러 단체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양수발전소 유치 확정 발표 전까지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봉철 상임의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앞으로 릴레이 캠페인과 함께 양수발전 유치 챌린지를 계속해 추진하여 군민들의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의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들이다.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군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가족과 함께 영화 보는날 운영

호국보훈의 달 맞아 소천면 커뮤니티센터 '영웅' 상영

봉화군은 지난 27일 소천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청소년 및 지역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 영화 보는 날을 운영했다.

가족과 함께 영화 보는 날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우리지역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찾아가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중심의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소

천면에서 요청한 '영웅'을 상영했다. 영화 '영웅'은 뮤지컬 '영웅'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배재정 가족청소년과장은 "영화관이 없는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청소년과 지역민에게 영화를 상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8월에는 상운지역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는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생발전을 위한 안동시, 마을기업 소통 간담회 개최

다누림 협동조합 우수사례 발표,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안동시는 27일 시청 응부관 소통실에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마을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8개의 마을기업 대표 및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누림 협동조합 신경진 대표의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누림 협동조합은 2018년 신규마을기업을 시작으로 2019년 재지정, 2020년 우수에 이어 올해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며 성장세를 이어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해왔다. 매년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서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

며, 선정된 마을기업은 유형에 따라 차등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안동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예비마을기업 2개소, 신규마을기업 2개소, 모두애(愛) 마을기업 1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권기창 시장은 "마을기업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의 출발점이 되어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본점 7월 이전 개관

경주시립도서관 별관으로 이전... 이용자 편의성 제고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본점이 경주시립도서관 별관으로 이전에 다음달 1일 재개관한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들에게 질 좋은 장난감 대여와 부모의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 2011년 경주예술의전당 1층에서 문을 열었다.

이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는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 2층에 행복드림점을 추가로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는 경주예술의전당에 위치한 본점이 개소한 지 10여년이 지나, 시설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경주시립도서관 별관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지난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이달 중순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장난감 정리 및 재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 4200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시에 거주하는 0-5세이하 영유아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회원으로 운

영되며 대여료는 무료다.

이용 시간은 매주 화요일 ~ 토요일 09:30~18:30, 휴관일은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키움 보육도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울산과학대, 여왕기 정상에 서다

울산과학대가 대전대덕대를 물리치고 여왕기 정상에 자리했다.

울산과학대는 25일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열린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대학부 결승전에서 승부차기(5-3) 끝에 대덕대를 따돌리고 10년 만에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여왕기 대학부는 총 7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2위가 4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렸다.

김효진/기자

울산과학대는 전반 5분 만에 대덕대에 두 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그러나 전반 37분 이진주의 추격골과 후반 22분 김유리의 동점골에 힘입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연장전을 득점 없이 마친 양 팀은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승부차기에서 울산과학대 골키퍼 홍유진이 강은영의 슈트를 막아내면서 5-3으로 끝났다.

울산과학대와 대덕대의 결승전 현장의 분위기를 사진을 통해 전한다.

김효진/기자



울산과학대, 여왕기 정상에 서다

울산과학대가 대전대덕대를 물리치고 여왕기 정상에 자리했다.

울산과학대는 25일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열린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대학부 결승전에서 승부차기(5-3) 끝에 대덕대를 따돌리고 10년 만에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여왕기 대학부는 총 7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2위가 4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렸다.

김효진/기자

울산과학대는 전반 5분 만에 대덕대에 두 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그러나 전반 37분 이진주의 추격골과 후반 22분 김유리의 동점골에 힘입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연장전을 득점 없이 마친 양 팀은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승부차기에서 울산과학대 골키퍼 홍유진이 강은영의 슈트를 막아내면서 5-3으로 끝났다.

울산과학대와 대덕대의 결승전 현장의 분위기를 사진을 통해 전한다.

김효진/기자

과학체험을 울릉도에서! 경북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퍼포먼스 형태의 수업으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과학에 대한 흥미 이끌어

경북도는 27일 울릉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4년도부터 추진한 경상북도 생활과학교실은 경북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사업비 2억8천만원을 지원해 대구경북과학기술인회와 운영하고 있다.

생활과학교실은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도서관 등 70여개의 다양한 장소에서 초등학생, 성인, 장애아 등 사회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체험, 실험 위주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북도의 대표적인 과학문화 확산사업이다.

이번 이공계 전공 석박사급 강사들과 대구경북과학기술인회 관계자가 울릉도를 방문해 울릉초, 저동초, 남양초 3개 학교 전교생 207명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열었다. 멩거스펀지, 너의 귀를 빌려줘, 달의 변화

와 조트로프 등 15여개 과학프로그램과 메타버스에서 놀기, 드론 활용 방제시범과 영상 촬영 등 퍼포먼스 형태의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울릉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각종 교육 및 과학체험을 접할 기회가 적어 이번 방문으로 아이들이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교구를 통해 직접 과학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과학교실에 참가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외에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우리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실험을 통해 배운 것을 학교에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라며, 앞으로 자주 과학교실을 개설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경북도에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미래 꿈나무를 육성시키기 위해 앞으로 생활과학교실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경북도에서는 도내 학생이라면 누구나

생활 속 과학체험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 친환경 농축산물 사러 오세요~

7월 1일 군위군 시 편입에 발맞추어 군위군 우수 농축산물 판매 행사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발맞춰 신세계백화점, 농부장터, 하나로마트 성서점, 북만네마켓에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군위군 우수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체감하고, 군위군 농가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우수 농축산물 홍보 및 판로지원 행사를 준비했다. 시민 접근성이 좋은 백화점과 마트 4개소에서 진행되며 2만 원 이상 구매 시 새송이버섯 제공 등 다양한 사은행사와 시식 코너를 운영한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현재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농축산물을 만나 볼 수 있다. 친환경으로 재배된 토마토, 오이, 버섯류부터 자두뽕, 대추스낵, 참기름 등 가공품과 군위축산농협에서 준비한 한우

와 한돈까지 30여 종의 다양한 농축산물이 판매된다.

그리고 북구 농부장터와 남구 북만네마켓에서는 현재 흥수 출하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두, 토마토, 오이 판매에 주력한다. 달서구 성서하나로마트는 기존의 군위군 농산물 상시 판매공간 외에 판매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군위군 농산물과 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발맞추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군위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축산물을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 군위군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울에너지팜, 누적 방문객 500만 명 돌파!

박범수 본부장, "남녀노소 즐길 콘텐츠 강화, 주말도 개방 오셔서 함께 즐기시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 이하 한울본부)는 지난 1985년 9월 16일 개관한 한울에너지팜(구 전력홍보관)이 지난 27일 15시 30분경 500만 번째 내방객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한울에너지팜은 이를 기념하여 500만 번째 방문한 고객에게는 태블릿PC를, 500만 번째 전·후 방문객에게는 덕구운천 숙박권을 선물했다. 이날 태블릿PC를 선물로 받게 된 행운의 주인공은 울진군 울진읍에 거주하는 이재나씨다.

이재나씨는 "평소 원자력에 관심이 많아서 한울에너지팜에 자주 방문한다"라며, "자주 오다 보니 이런 행운도 함께해 너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울본부는 이날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촬영, 기념품 증정, 명판 설치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500만 번째 주인공인 이재나씨 서명을 담은 명판을 한울에너지팜 입구 로비에 설치하였다.

한울에너지팜은 1985년 전력홍보관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다섯 차례 리모델링을 거쳐 전시판자 놀이터, 휴식공간이라는 다양한 성격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어린이 행사, 공연, 원데이 클래스,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 문화생활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박범수 본부장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더욱 강

화해 나겠다"라며, "주말에도 개방하니 지역주민은 물론 소규모로 울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즐기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의료버스 네트워크 포럼' 개최

6.28. 14:00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부산시는 오늘(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료버스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는 이동형 초음파, 엑스레이(X-ray) 등 전문검사장비를 탑재한 의료버스를 활용해 전문 의료진이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2일 지역외·복지 기관 3곳과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의 지역자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취약계층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역의료 자원을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와 연계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날 포럼도 이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시와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부산시 의사회, 부산시 병원회, 부산시사회복지관 협회)와 의료버스 운영 4개 기관(부산대학교 병원, 해운대부민병원, 메리놀병원, 부산성모병원) 관계자와 보건학계 및 복지분야 관계자, 마을건강센터 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현황 및 정책방향', '유연의료 프로젝트'를 주제로 하는 강연과 ▲지역자원의 연계 방안 및 계획 ▲의료버스 운영 및 실무 현황 ▲의

료취약계층 발굴·연계 방안 및 제언 ▲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부산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을 주제로 하는 분야별 의견 청취와 토론, 질의답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의료버스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도출된 의견과 제안사항들을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지역자원 연계에 위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검토한 다음,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이 '돌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의 성격도 갖추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사업이 첨단 의료기술과 함께 맞춤형 진료, 예방 중심 진료로 의료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부산형 첨단 헬스케어'의 주축이 되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준진/기자



청송군,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 앞장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청송군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매달 점검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수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여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의 무상제공 여부,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여부,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

상제공 여부 등이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등이 확대 추가 됐다. 추가 항목에 관하여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께서 다회용 컵,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위한 사거리 홍보 캠페인 펼쳐

지난 27일 07시30분부터 09시까지 영양군법원사거리에서 대한적십자회 회원 59명과 영양군 자율방범대 회원 19명, 오도창 군수를 비롯한 군청 간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사거리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영양군은 이와같은 홍보캠페인을 지난 5월부터 계속 펼쳐오고 있으며 양수발전소 유치 확정 발표시까지 이 홍보캠페인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각 기관·단체에서 서로서로 캠페인 활동을 하겠다는 단체가 줄을 잇고 있는데다 지난 25일 영양군 일부 반대론자들과 양수발전소 유치 반대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양수발전소 유치를 동참을 결정하면서 반대 현수막을 자진해서 철거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양수발전소 유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적십자단체 박정숙 회장은 "우리 영양군의 미래가 달린 양수발전소가 반드시 유치 돼야 한다"면서 "언론 기자분들께서 저희 영양군이 반드시 양수발전소 유치가 돼도록 적극 홍보를 해 달라"고 오히려 취재진에게 부탁할 정도로 유치 열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동참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영양군의 미래 먹거리로 절박한 인구 절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과 목소리

로 반드시 영양양수발전소를 유치해 내자"고 힘써 말했다.

한편, 취재진이 지금까지 지켜 보오면서 영양군민 모두가 이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영양군민 모두가 총력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뜨거운 영양군민의 유치 열기가 곧 현실로 다가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예감할 수 있게 됐다.

윤근수/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글로벌 해상

“전남, 해상풍력 최적지로서, 투자기업 전폭 지원” 약속

풍력 리더와 한자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주한 덴마크대사관에서 열린 글로벌 해상풍력 네트워킹 행사에 자치단체장으로 유일하게 초청받아 전남 해상풍력 투자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한 덴마크대사관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는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김성권 CS윈드 회장, 톨슨 스멧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부회장, 한승수 노스랜드파워 코리아 대표 등 국내외 해상풍력 리더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 큰 발전 문제 전담도가 앞장서서 규제 개선을 건의해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해상풍력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전용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산업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며 “전남의 산업 생태계가 더욱 탄탄히 갖춰지도록 발전사에서도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남도는 지역 대학과 협력해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갖춰가고 있다”며 “해상풍력을 위한 최적의 생태계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있는 전남이 해상풍력의 최적지로서, 기획의 땅이 되도록 전남 투자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이날 다시 만난 김영록 지사와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은 터빈공장 설립 등 해상풍력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생태경제 효과, 차세대 ESS 에너지 산업까지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사(주)인투알과 투자협약 체결, 지역인재 100명 채용



개장 84일만에 관람객 500만명을 달성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과 함께 ‘생태경제’ 전략이 이제는 순천 경제 활성화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순천시는 27일 ESS 전문기업인 (주)인투알과 투자액 175억 원, 고용인원 100명 규모의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2002년에 설립된 (주)인투알은 최첨단

네트워크·통신기기 장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캐비닛랙, 옥외용 합체랙 등을 제조하는 알토란 같은 기업으로 2016년부터는 ESS(에너지 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분야로 영역을 확대한 후 급성장하고 있다.

(주)인투알 관계자는 “이번 투자로 순천 울촌1산단 공장에 ESS 대형 특수 컨

테이너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2024년까지 생산량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량을 늘리고, 기존의 협력 업체까지 울촌1산단에 동반 입주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순천시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기업이 잘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젊은 인재들이 머무는 만큼, 이제는 식구가 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2023년 상반기에만 8,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어 500여명의 고용 효과를 달성했다. 특히 대기업인 한화화 포스코 등을 잇따라 유치하며 순천의 차별화된 생태경제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15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노관규 표 생태경제 전략이 주요한 것이다. 실제로 작년 대비 투자유치액이 30배 상승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갈치마을, 특색있는 지방 도색으로 멀리서도 눈에 띄는 마을 경관 조성



남원시 갈치마을은 2022년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갈치마을의 미관 조성을 위해 지방 도색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색으로 도색하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간단한 다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주민휴

식공간도 리모델링하여 갈치마을회에서 운영, 마을 주민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다.

현재는 주민들이 산책하고 쉴 수 있는 풍경동산을 조성하고 있으며, 8월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풍경동산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아름다운 마을 경관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며 “마을 구경은 물론 도자기 공예 등 문화 체험도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문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 및 노선개편 시민설명회 가져

시내버스-마을버스-마을택시 노선, 급행버스 도입 등 노선 개편 설명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일 대중교통(운수회사)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 해소를 위한 대시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나주시는 설명회를 통해 운수회사(나주교통) 보조금 과다 지원에 대한 전남도 주민감사청구, 시민사회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 행정 조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특히 대중교통 관련 주요 쟁점들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진솔한 답변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개편 추진 방향, 효과 등을 영상과 PPT 발표를 통해 공유했다.

26일 오후 4시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각계각층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발표(자)는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체계’(운송원가 운영사), ‘대중교통 보조금 개선사항 및 팩트체크’(나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노선 개편 사항’(노선개편 운영사),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첫 발표는 지선·간선버스 지원방식, 표준운송원가 정의, 방식, 지원 항목, 산정·정산 등 대중교통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뤄졌다.

이어 나주시 교통행정과장이 나주교통 회계감사사용역(2019~2020)에 따른 6억 6800만원 회수 조치,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결과 전체 10건 조치 완료, 시민사회 고발(4건, 불송치 혐의없음)에 대한 조치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지침 마련’, ‘표준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사업 별도 사업 관리 및 원가 제외’, ‘임원 인건비 6명 중 3명 지원’, ‘보조금 정산 관련 과업 강화’,

‘간선 현금 수입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대중교통 보조금 등 팩트체크Q&A를 통해 임원 및 승무원 인건비 책정, 나주교통 현금 수입 관리,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 등 의문 사항을 20여 항목으로 정리해 답변했다.

나주시는 현 대중교통 현황 문제점으로 ‘대중교통 노선의 높은 중복도 및 많은 가지노선’, ‘일정하지 않은 배차 간격’, ‘대중교통 보조금 증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노선 개편 계획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노선체계 구축’, ‘혁신도시-나주역-원도심 구간 운행 급행버스 도입’, ‘100원 택시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빛가람동 시범 운영’, ‘1개면 마을택시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노선 감축(223개-46개), 운행 대수 감소(132대-120대), 연간 대중교통 보조금 45억원 절감 등 노선 개편 결과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나주시는 이번 대시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부터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통해 지역별 대중교통 수요, 각계각층 시민의 목소리를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설명회가 대중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논란, 의혹을 사실에 기반해 시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혁신적인 대중교통 노선개편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조금은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함평군, 흑하량 상추차(茶) 일본 수출길 올라

숙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기능성 상추 ‘흑하량’으로 만든 상추차(茶)가 일본 첫 수출길에 올랐다.

함평군은 ‘흑하량 상추차(茶) 일본 수출 상차식’이 지난 26일 동함평산단 내 (주)천지운에서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상차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영랑 함평군의회 의장, 흑하량 생산 농가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일본 수출은 함평군에서 지난 2020년 흑하량 상추를 처음 시범 재배한 지 4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날 수출길에 오를 흑하량 상추 가공품은 티백차를 비롯한 3종으로, 올해 초 일본 현지 시식과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자 테스트를 마쳤다.

군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프랑스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모색해 흑하량



상추 가공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일본 수출이 흑하량 상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흑하량 상추는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능성 신종품 상추로, 락투신 성분이 일반 상추에 비해 124배 높아 숙면에 효과가 있다.

박원규/기자

완도군, 해산물 우수성과 해수 성분 영양학적 관계 밝혀

전남 완도 해산물 우수성은 해저의 맥반석 기반암과 갯벌 그리고 해수 성분의 영향으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완도군은 해양환경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 19일 ‘완도 지역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순천대학교 김정민 교수와 전남대학교 김태훈 교수가 완도 지역 연안 해수의 화학적 성분(유기탄소, 용존 무기영양염, 미량원소)을 분석하여 해수와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 관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훈 교수는 완도의 해산물 양식장 주변 해수를 대상으로 계절별(총 4회) 영양염류와 미량금속 성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완도 지역 해수 중 유기물(유기탄소)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았다.

또한 완도 해산물의 원소 함유량 분석 결과, 갯벌과 암석의 지화학적 영향으로 칼륨, 나트륨, 아연 함량이 높고, 전복 및 바지락 채취 지역의 암석과 갯벌에는 칼슘과 나트륨, 철, 아연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돼 있고, 바지락과 꼬막은 철과 아연의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완도 해역 대부분이 정화 작용이 우수한 맥반석으로 형성돼 청정한 바다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조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완도 해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역 과제 중 완도군 내해(소안도 해

역) 인공 방사는 수치를 측정할 결과 해양환경 공단에서 조사한 201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완도군 내해 인공 방사능 농도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군은 앞으로도 해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산물과 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영욱/기자



진도소방서, 응급구조사 교육 받던 소방관 교통사고 피해자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 구해

진도소방서는 22일 밤 10시 20분경 응급구조사 2급 교육을 받고 있던 정화량 소방장 등 3명의 소방관이 나주시 빛가람동 석전교차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해 생명을 구하는데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응급처치를 실시한 정화량 소방장, 김세근·고두현 소방관은 전남소방본부 소속으로 광주소방학교에서 9주간 진행하는 응급구조사 2급 집합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를 목격한 즉시 119신고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피해자 상태를 살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의식이 없고 맥박은 있는 상태였으며, 왼쪽 팔꿈치 개방성 골절 및 손목 골절, 두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었다.

이들은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과정에서 배운대로 구급대에게 정확한 위치와 환자 상태를 알리고 외상평가, 출혈 부위 지혈, 2차 손상 방지 등 초기응급처치를 실시했다.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자 현장도착한 나주소방서 빛가람센터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진도소방서 정화량 소방장은 “5주간 학교에서 응급구조사 2급 과정 교육을 받았기에 처치를 할 수 있었다.”며 “9주간의 교육을 모

두 마친 후에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전북도 김중훈부지사, 이스라엘과 스타트업·인공지능 산업 협력 물꼬

26~27일, 김중훈 경제부지사 이스라엘 선진기업 방문 등 광폭 행보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26일~27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과 새만금의 유대계 자본 유치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5월 있었던 김관영 도지사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전 총리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다.

김 부지사는 먼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기업 엘코그룹을 방문해 마이클 살만드 회장을 만나고 새만금과 이차전지 기업 유치 등 투자 환경을 설명했다.

엘코그룹은 1949년 창립된 유대계 기업으로 건설, 부동산, 에너지 등 17개국 21,000여 명의 직원을 둔 글로벌 대기업이다.

이날 그룹 총수인 마이클 살만드 회장은 새만금과 이차전지에 큰 관심을 보이며 빠른 시일안에 전라북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유대계 핵심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엘코그룹의 총수가 전북을 방문함으로써 유대계 투자 연계에 큰 물꼬가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엘코그룹의 자회사이자 글로벌 부동산 사모펀드인 '엘렉트라개발'도 전북도와 협약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도내 아시아 대표 사무소 설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엘렉트라개발'은 테슬라가 구축하는 독일 기가팩토리의 전략 파트너이며, 미국 유대계 최대 부동산 투자기관인 '아메리칸 랜드마크'의 주요 파트너다.

더불어 김 부지사는 이스라엘의 인공지능(AI) 분야 선구자인 전 UCLA 교수 출신의 '플래테인*' 기업 모세 벤바사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도내 기업의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도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벤처 창업기업 투자 유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농업기술의 강국인 이스라엘에서 첨단농업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엔드립' 기업과 '테벨 에어로보틱스' 기업 등 이스라엘 유망 스타트업을 방문해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이들 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조 최적화 솔루션 및 로봇 농업기술을 전북기업에 접목해 노동력 대체 성능을 개선하고 농장작업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김 부지사는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을 만나 전북도 유망 벤처 창업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12월 한-이스라엘 FTA가 체결되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유대계 자본이 전북도를 거점으로 국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채널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인구대비 전세계에서 가장 창업이 활발한 국가이며, 수도권 텔아비브는 미국 싱크탱크 저보

에서 발표한 세계 5대 창업도시다. 텔아비브는 인구 40만 규모의 작은 도시이나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58개, 조성된 펀드 규모가 600조를 상회하는 등 매년 1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나스닥과 M&A를 통해 엑시트(EXIT) 성과를 내고 있다.

이남출/기자



구례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실시

전남 구례군은 지난 27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구례군체육회, 군 스포츠산업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전한 인명 구조를 위해 실시됐으며, 다중밀집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 진화, 인명 대피, 의료 구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에서 소화기 작동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도 실시했다.

김순호 군수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즉각적인 위기 대응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상호 공조체제 확립을 강화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김성 장흥군수, 장마철 대비 재해위험현장 의회와 합동점검

대덕 분토천 수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덕촌마을) 현장점검

김성 장흥군수와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이 대덕읍 분토천 수해복구 현장과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위험지구(덕촌마을)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따라 현장점검 및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2021년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분토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은 지난해 10월 25일 합동점검 시 주민들이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장흥군과 장흥군의회는 수해복구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복구공사 공정률은 95%로 본격적인 우기철 이전 공사를 마무리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이어, 김성 군수와 왕윤채 의장은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대덕 재해위험지

구(덕촌마을 일원)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

주민들은 피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을 면담하여 주택침수 등 현장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2024년 신규 재해위험지구(대덕지구)로 대덕천 정비 및 펌프장 설치 등 약 400억 원의 사업비를 건의했다"며, "담당부서와 함께 사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폭우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화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간담회 개최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 만들어



화순군은 지난 26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체험·휴양마을 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과 체험·휴양마을의 다양성을 통해 농촌에는 소득 증대를, 도시민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체험·휴양마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화순군수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14개 체험·휴양마을에서 17명의 위원장 또는 사무장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각 마을의 향후 계획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토

의하고, 화순군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구복규 군수는 "어떤 시설을 갖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이 현재의 운영 방식에 얽매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영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군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약속했다.

참석한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도 "격식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앞으로 간담회가 정례화되어 체험·휴양마을 운영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희망했다.

윤경호/기자

강진군, 행안부 '2023년 모두애(愛) 마을기업' 공모사업 선정

강진군 마을기업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대표 최향심)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모두애(愛) 마을기업'에 선정됐다

고 27일 밝혔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제품 브랜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은 자연군으로 제조하는 독창적 장류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20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농업 기술 습득을 지원해 마을에 정착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전담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강진 백금포로생태문화협동조합은 군동 지역 마을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카페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 선정...최대 1억 원 지원



전담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에 개소당 2천만 원을 지원하며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을 위한 '2023년 사회적 경제 기업 시설 장비·고도화 지원사업'에는 농협회사법인발효담다(주), ㈜다산명가 등 농업회사법인 2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용물포장기 등 시설장비와 장류 제조 공정 개선, 품질 개선 사업 등에 사업비 1,400만 원이 지원된다.

강진된 군수는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신안군, 섬 원추리 축제가 7월 7일부터 10일간 흥도에서 열린다

신안군은 한국인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 선정된 흥도에서 '흥도원추리와 야생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섬 원추리 축제'가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흥도원추리'는 식물도감에도 등재된 육지 원추리에 비해 꽃이 유난히 크고 아름다우며 질감이 고와 관상 가치가 매우 뛰어나 야생화 식물로서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흥도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보릿고개시절 흥도 주민은 원추리 잎으로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견뎌 냈으며, 원추리꽃이 지고 나면 잎을 잘 새끼를 꼬아 띠 지붕을 만들고, 배 밧줄, 광주리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도구를 만들어 쓰면서 살아왔다.

또한, 천연의 신비를 간직한 섬 '흥도'는

천연기념물 제170호(1965년 지정) 지정됐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1981년 지정)되어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30분 거리임에도 해마다 10만 명 이상 관광객들이 찾는 섬으로 각광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흥도의 과거,현재,미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진전을 마련하고 흥도를 찾아오는 모든분들이 아름다운 흥도원추리꽃과 야

를다운 절경을 만끽하고 가족과 연인들이 행복을 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갑문/기자



목포시,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추진

청년스마트도시 본격 육성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

목포시가 4차산업 관련 청년 구직 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빅데이터, 코딩, AI 등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교육비 중 자기부담분 80프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4차산업에 최적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리시 청년들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해 청년스마트도시 목포의 미래인재 양성에 목포시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하는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을 확보했으며 지역내 학생,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한 스마트인재교육센터를 구 청호중동에 구축하고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관련 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키오스크부터 GPT까지, 디지털 체험존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체험하세요

충북도, 디지털 체험존 7월부터 11개소 본격 운영

충북도는 도민 누구나 디지털 격차와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체험 공간인 '디지털 체험존'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도내 11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되는 디지털 체험존은 민선 8기(무인정보단말기), 인공지능(AI) 스피커, VR/AR 등 다양한 최신 디지털 기기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교육용 키오스크를 통해 식당이나 병원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형의 키오스크 작동법을 익힐 수 있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오픈AI인 챗GPT 및 구글 바드 등 최신 AI 활용 체험도 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체험존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청북도가 주관하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집 근처 디지털 배움터에서 개인 역량에 맞는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실습형 디지털 역량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디지털배움터.kr'로 신청하거나 대표번호 1588-0096으로 전화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일상생활 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북도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디지털 체험존'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몸소 체험해 활용 능력을 키워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연평해전 영웅 故 박동혁 병장 유가족 찾아 위로 전달

“보훈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이웃의 슬픔을 나누는 것도 보훈”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6월 27일, 제2연평해전 21주년을 이틀 앞두고 제2연평해전 영웅 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님께 거주하는 홍천군 자택을 직접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달했다.

故 박동혁 병장은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서 부상당한 전우를 치료하다가 부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고 84일간 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2002년 9월 20일 새벽, 끝내 세상을 떠났다.

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님은 2004년 강원도 홍천군으로 이사 와 2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중이다.

21년이 지나도 아들을 잊지 못 하는 부모님은 집에 故 박동혁 병장을 위한 방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김진태 지사는 부모님의 안내를 받아 방에 들어가 해군기가 깔려있는 탁자, 박동혁 병장의 백일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 군복무 사진을 둘러보고, 벽에 붙여 있는 연평해전 영화 포스터도 둘러보았다.

김진태 지사는 부모님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 가실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아드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 달라”라고 말했다.

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님은 아직도 아들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고 하며, 살아있었다면 43살에 행복한 가정을 꾸린 치기공사가 됐을 아들의 모습을 떠올려보곤 한다고 이야기했다.

故 박동혁 병장은, 1981년 8월 25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 원광대학교 치기공과에 입학했고, 2001년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위해 군에 입대했다.

전투 당시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의무병으로서 다른 장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참수리 357호 안을 뛰어다녔으며, 부상당한 전우를 치료하던 중 전우가 총탄에 쓰러지자 총을 잡고 대응사격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 몸에 총상과 파편상을 입었다.

당시 상병이었으나, 이후 정부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명의 용사들에게 1계급 진급을 추서하며 병장으로 특진했고,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김진태 지사는 “보훈은 멀리 있지 않

다. 우리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이웃의 슬픔을 나누는 것도 보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조국을 지킨 영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유가족에게도 최고의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웅, 의인, 미래인재들을 특별초청하면서 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님을 초청한 바 있다.

최광수/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 위해 달린 1년, 혁신 고삐 더 당길 것”

27일 시청 상황실서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회견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추진할 시정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아산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을 이끄는 ‘떠오르는 태양의 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1년의 주요 성과로 국립경향병원 본원 유치 성공,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 조성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삼성디스플레이 4.1조 아산 투자 유치 등 국내 6조 2천억 원, 해외 2억9500만 불 투자유치 성공, 성웅 이순신 축제 전면 개혁, 참여자치위원회 출범 및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이 모든 성과는 2600여 공직자들이 ‘시민 행복’을 최우선 소명으로 달린 덕분”이라며 공을 돌리고 “출범 2년 차를 맞아 혁신과 도약의 고삐를 더 당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9월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160억 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아산의 100년 미래먹거리 준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가 차원의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셨다”면서 “충남도가 구상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과 연계해서도 아산시는 그 중심적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부품업체의 부차형 디스플레이산업 전환 지원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전환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 대표기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미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현안을 직접 협의·해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진행한 열린간담회와 시민과 시장의 직접 소통창구인 ‘아산형통(牙山亨通)’, 고충 민원 전담 부서인 시민소통담당관 신설 등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장과 시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또, “지난 4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오로지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는 데 집중해 프로그램 전면 개혁을 단행해 대성공을 거뒀다”면서 “축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인물 축제의 한계를 극복해 거둔 성과였다”고 자평하며 성웅 이순신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도 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예술의전당 건립을 위한 예술기금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동시에 예술의전당 건립 전까지 경찰인재개발원 내 1700석 규모 대공연장인 차일혁홀, 신정호 야외음악당, 신정호 인근 대형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을 활용해 문화 예술 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아산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인프라 부족을 발상의 전환으로 계속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아산의 새로운 도전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비수도권 소도시들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박 시장은 출산 장려금 대폭 인상 및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 최대 300만 원 산후관리비 지원 등 출산 장려 정책, 참전유공자 수당 및 배우자 수당 인상 등 전국 최초 보훈 의전 종합계획 수립, 찾아가는 금미 어르신 돌보미단 발족 등 호도 시장 종합 계획 수립 등 민선 8기에 시작되어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아산형 복지사업’의 지속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충남 최초로 문을 연 서남권 어르신 건강돌봄센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관내 4개 권역 모두에 어르신 건강돌봄센터를 열고 어르신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비수도권 최대 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인 탕정2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은 올 1월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알리며 “개발 이면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균형발전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드리는 일이야말로 시장으로서의 소명이라고 믿는다”면서 “시민의 희망이 곧 아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오직 아산시민만을 위해 힘써줄 것”이라며 “이 가치 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충남도, “청년이 주인 되는 미래인재 양성 약속”

김 지사, 힘센충남 창업정책 소개 등 베이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참가 대학생 격려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베이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호서대학생들을 만나 ‘청년이 주인 되는 미래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중국 순방 첫 날인 27일 두 번째 일정으로 베이징 대학교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장을 찾아 한·중 대학생들을 격려 및 시상하고, ‘힘센충남 창업정책’

등을 소개했다.

호서대와 베이징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호서대 13명 7개 팀, 베이징대 6명 3개 팀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대회 기간 동안 창업대회 특강, 시장조사, 중관촌 창업거리, 북경대 탐방, 창업대회, 역사탐방(자금성, 만리

장성, 왕푸징, 전문) 등 프로그램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큰 행사인 창업대회 현장에 방문한 김 지사는 “이렇게 타국 땅에서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대학생들을 만나게 돼 반갑고, 함께 한 베이징 대학생들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린다”며 “한·중 양국 대학생들의 글로벌 창업 마인드 고취를 위한 훌륭한 대회를 마련해 준 베이징대와 호서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인 대학생들은 시장 조사와 창업프로그램 수립 등 실천과 같은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전하고, 꿈을 반드시 이루는 미래인재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대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김 지사는 힘센충남 창업정책을 소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올해는 13개 창업기반 사업에 272억 원을 투입하며, 주요 사업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지원(123억), 창업중심대학(71억), 창업마루 나비(4억 9000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8억 8000만),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6억) 등이다.

도는 경제발전 극대화를 위해 창업 지원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초기 창업 기업이 창업 후 자금 유치 실패 등으로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실패하는 시기(데스밸리, Death Valley)를 극복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청년이 주인이 되는 미래인재 양성을 최우선 도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기술을 서로 주는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국제화 특구’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속담에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뜻을 가진 불파만, 지파참(不帕慢, 只怕站)이라는 말이 있다”며 “충남은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성장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호/기자

태백시, 민선 8기 1년 시정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선 8기 1년 시정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성과 및 과제 보고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 아쉬운 점 그리고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고, 지역의 원일인 고속도로망 확충(EMU-150, 동서고속도로)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기업유치 7개사 등 지역 내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 대회 61개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선수단 54개 팀 등 32만여 명 이상의 스포츠인들의 방문을 유도했으며, 신규 스포츠 시설 7개 사업을 확정하는 등 스포츠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시는 발로 뛰는 적극행정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민선 8기 남은 3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집중할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떠나는 태백이 아닌 돌아오는 태백’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했다. 또한, 취임 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4대 분야 26개 사업 중 23개 사업은 이미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준비 중으로 확인하며, 임기 내 차질 없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후보 시절부터 태백시민들과 약속한 ‘떠나는 태백’에서 ‘돌아오는 태백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3년 관공의 재도약, 2024년 스포츠의 재도약, 2025

년 경제의 재도약을 계획한 만큼, 2026년 계획한 사업들이 준공되고 완성되면, 2027년부터는 인구의 재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선 8기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위한 공적인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호/기자



충남도, 4급 승진 14명 중 6명 발탁 '파격'

하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 단행... "성과 중심 도정 운영 방침"



장 팀장은 라오스와 도-시군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유입시켜 영농지역의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함께 청년농 육성, 시군별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담은 '민선8기 스마트팜 육성' 계획을 수립·추진해 충남을 스마트팜의 선도 지역으로 견인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발탁 승진자는 정현웅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이다.

정 팀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개 출연기관의 조직·기능·역할 등을 재검토하고, 업무가 중복돼 방만하게 운영되던 3개 기관을 과감히 통폐합한 공로가 인정됐다.

정 팀장은 대백제전 조직위원회로 파견할 예정으로, 3개월 남은 대백제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공주시-부여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김창태 투자동향정책관실 투자동향기획팀장이다.

김 팀장은 민선8기 도 산하 경제 분야 공공기관에 위탁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해 5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이 인정됐다.

네 번째로 권경선 청년정책관실 청년정책팀장을 발탁했다.

권 팀장은 민선8기 청년정책 방향을 설계했고, 공약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다섯 번째로 나기복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장을 발탁했다.

나 팀장은 동물위생시험소 내 노후된 환경을 개선, 업무 환경을 개선한 공을 인정받았다.

여섯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홍현미 환경조사팀장이다.

홍 팀장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환경안정성 조사, 무료수질 검사 등을 통해 도민 건강복지 실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반기 인사에서는 발탁 승진과 더불어 기술직렬 등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띈다.

먼저 최재성 산업육성정책과이 계룡부시장으로 전출된 것인데, 공업직 출신 공무원을 부단계장으로 선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최 과장은 세계 최초 OLED 전용라인 투자협약 등 충남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가 인정됐다.

그리고, 성만재 보건정책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배치한다.

성만재 과장은 금산군 보건소 소속, 노후병원선 건조 등 도내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 6개월 동안 보건으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 됐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충남도는 성과를 낸 공무원은 적극 발탁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상향 보직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 조직이 역동적이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5급 이하 후속인사는 2023년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충남도가 민선8기 성과 중심 도정 운영을 위한 하반기 인사 단행했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자 하반기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자 15명(3급 1명, 4급 14명), 전보·전출 12명 등 총 27명이다.

상반기 조직개편 시 과·과장 인력을 대규모 교체해 하반기에는 전보 인사를 최소화했다.

승진자는 그동안 성과를 올린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는데 방침을 뒀다.

먼저 공석이 된 문화체육관광국장(3급)에는 강관식 인사담당관을 승진시켜 배치한다.

강관식 인사담당관은 민선8기 13개 실·국 66개 과의 조직을 11개 실·국 65개 과로 개편(2개국 1개과 축소)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강 담당관은 또 김태홍 지사의 첫 시군 방문을 진행, 시군 속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도-시군 간 협력과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4급 인사에서는 발탁 승진을 대폭 확대, '힘센충남'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김 지사의 인사 철학을 적극 반영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8일 발탁승진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승진자 총 14명 중 역대 최대 폭인 6명을 발탁했다.

첫 번째 발탁 승진자는 장인동 스마트농업과 농산정책팀장이다.

통폐합한 공로가 인정됐다.

정 팀장은 대백제전 조직위원회로 파견할 예정으로, 3개월 남은 대백제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공주시-부여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김창태 투자동향정책관실 투자동향기획팀장이다.

김 팀장은 민선8기 도 산하 경제 분야 공공기관에 위탁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해 5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이 인정됐다.

네 번째로 권경선 청년정책관실 청년정책팀장을 발탁했다.

권 팀장은 민선8기 청년정책 방향을 설계했고, 공약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다섯 번째로 나기복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정책팀장을 발탁했다.

나 팀장은 동물위생시험소 내 노후된 환경을 개선, 업무 환경을 개선한 공을 인정받았다.

여섯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홍현미 환경조사팀장이다.

홍 팀장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환경안정성 조사, 무료수질 검사 등을 통해 도민 건강복지 실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반기 인사에서는 발탁 승진과 더불어 기술직렬 등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띈다.

먼저 최재성 산업육성정책과이 계룡부시장으로 전출된 것인데, 공업직 출신 공무원을 부단계장으로 선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최 과장은 세계 최초 OLED 전용라인 투자협약 등 충남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가 인정됐다.

그리고, 성만재 보건정책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배치한다.

성만재 과장은 금산군 보건소 소속, 노후병원선 건조 등 도내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 6개월 동안 보건으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 됐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충남도는 성과를 낸 공무원은 적극 발탁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상향 보직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 조직이 역동적이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5급 이하 후속인사는 2023년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서울시, 29일 톨게이트에서 체납·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

29일 사·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명, 단속차량 46대 투입

서울시는 오는 29일 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및 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조세징의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준법 의식 함양 및 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여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 3천 여대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이며, 서울시 전체 체납액 7,32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8만 여대, 1,212억원이며,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영치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은 18만 여대 104억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원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 3월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해 영치예고 345대, 영치 683대, 견인 17대의 실적을 거두는 등 7천800만 원을 현장징수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급징수와 조사관, 교통지도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담당,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차량 44대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양세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불특정 톨게이트를 단속장소에 포함시켰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고액·상속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개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인도 및 공개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높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젊음의 상징 신촌에서 K-컬처 산업전문가 키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9호 캠퍼스 개관

청년취업사관학교 9호점 서대문 캠퍼스, 젊음과 청춘의 상징적 지역인 신촌에 개관

젊음과 청춘, 대학문화의 중심 신촌에 '청년취업사관학교 9호' 캠퍼스가 창천문화공원의 신촌파랑고래에 문을 연다. '신촌지역 K-컬처 산업벨트 조성'이라는 지역 산업 목표를 반영해 '디지털 문화콘텐츠'라는 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에 청년취업사관학교 9호, 서대문 캠퍼스로 탈바꿈한 '신촌, 파랑고래'는 자치구가 건물과 서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교육시설로 운영하는 자치구 협력 캠퍼스이기도 하다.

고래 모양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외관을 갖춘 건물로, 창천문화공원(신촌역 1번출구 도보3분, 현대백화점 뒤편) 내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려는 0세출 시장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2020년 영등포 캠퍼스, 2021년 금천 캠퍼스, 2022년 마포·용산·강서·강동·동작 캠퍼스, 2023년 5월 광진 캠퍼스를 개관하여 8개 캠퍼스를 운영 중으로, 2025년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전 자치구 조성을 목표로 본격 확대 추진 중이다.



지난 3년간 1,934명, 올해는 2,300명, 25개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2025년에는 연간 5,000명에게 양질의 디지털 교육과 밀착 취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촌, 파랑고래'에 개관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 캠퍼스'는 강의실, 커뮤니티 라운지,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대학생과 청년들의 공공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시설로 조성되어 청년들의 소통·행사 공간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서대문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청년취업사관학교로 조성해, 청년취업지원시설로 운영한다.

강의실에서는 실무 위주의 디지털 신기술 교육이 진행되고, 커뮤니티 라운지

에서는 교육생들간 네트워킹·팀빌딩 및 취업 연계 행사가 수시로 진행된다. 상담실에는 전담 취업 상담원(잡코디)이 배치되어 밀착·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교육생과 적합한 직무·직군을 연계하는 등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대문 캠퍼스에서는 디지털전환(DT) 비개발직군 교육과정으로 디지털 문화콘텐츠 분야 특화과정(3D 그래픽)을 운영한다. 소프트웨어(SW) 개발직군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 웹, 게임 3개 분야 과정을 운영해, K-컬처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6월 29일(목) 14시 30분부터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 캠퍼스 1층 계단광장에서 개관식 및 입학식을 개최한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이성현 서대문구청장도 개관식에 참석해 입학생들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젊음과 청춘, 대학 문화를 상징하는 신촌에 개관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 캠퍼스가 인재가 필요한 스타트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거창군, '노노(老老)케어 친구만들기' 민간 협력 돌봄체계 구축

외로움 녹이는 노노케어, 치매극복에 한마음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부터 관내 경중 치매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단과 '행복한 동행, 노노케어 친구만들기'로 치매극복에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다.

노노(老老)케어란 건강한 노인이 질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본다는 뜻의 합성어로 건강한 노인을 일자리를 얻을과 동시에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치매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며 지낼 수 있다.

거창시니어클럽에 소속된 노인일자리 참여자 160명이 2인 1조로 치매노인 100명의 안부와 주거, 건강 상태 파

악 등의 돌봄활동을 통해 위기 상황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이웃을 만나기가 힘든 현실에 노노케어는 연령대가 비슷한 어르신들끼리 상호 돌봄을 주고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치유하는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제가 치매노인의 안전관리와 일상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다양한 민간 협력 돌봄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장병철/기자



합천군, 2023 고향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합천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2023 합천 고향여름캠프'를 운영하며 참가자를 오는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합천 고향여름캠프는 재외향우 2~3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팸투어로, 합천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돌아보며 고향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고향 알리기 사업이다. 2016년 처음 시작해 지난 3년간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재외향우 가족단위 소규모 자유여행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4년 만에 다시 향우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름캠프형 팸투어로 합천군관광협의회에 위탁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합천에 고향을 둔 재외향우의 2~3세 자녀들로 초등학생부터 대

학생까지 참여 가능하며, 등록기준지가 합천인 재외향우 대표자의 직계 비속으로 한정된다.

고향 캠프는 2박 3일 일정으로 1차 7월 28일에서 30일, 2차 8월 4일에서 6일까지 두 차례 진행되며, 회차당 참가인원은 30명으로 60명 모집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합천군관광협의회에 이메일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캠프 일정은 첫날 입소식을 시작으로 합천박물관 및 옥전고분군 관람, 합천의 역사에 대한 인문학 강좌가 진행되고, 둘째날은 해인사와 대장경테마파크 투어 후 정양레포츠공원에서 열리는 바캉스축제에서 물놀이를 즐길 계획이다. 마지막 날

에는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 관람을 하고 청와대세트장에서 퇴소식으로 캠프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성경 관광진흥과장은 "고향여름캠프를 통해 합천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합천을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 합천고향여름캠프의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경북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교실 수업 혁신을 주도한다!

7월부터 57개 교과교육연구회별 상반기 연수회 실시



경북교육청은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57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부터 자발적으로 상반기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과교육연구회'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교과 연구를 실천해 오고 있는 교원학습공동체로 소통과 현장 연구로 경북 미래교육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57개 교과교육연구회는 연구회별 기본·특색과제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체험 활동 지도에 있어 학생 주도형 수업 활성화 방안과 전문적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을 빠르게 준비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그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특히 이번 7월부터 실시되는 상반기 연수에서는 연구회별 특성을 살린 중점 주제를 선정해 특강, 워크숍, 토론, 체험, 발표회 등 다양한 방법의 연수를 운영하게 된다.

'초등경제교과교육연구회'는 7월 1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어린이 금융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제전문가의 강연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금융 인식 및 경제교육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초등미술교과교육연구회'는 새마을운동테마공

원에서 도슨트 정우철의 '화가 알폰스 무하의 삶'이란 강연을 통해 미술작품 감상 지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평가교과교육연구회'는 7월 15일 상주자연드림에서 '학교 자율시간 운영에 따른 과정중심평가'이라는 주제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대비를 위해 연구회 특성을 살린 연수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여러 교과교육연구회에서 교육연극, 한국독립전쟁사, MBTI(성격유형검사)를 활용 학생이해, 문해력 교육사례 발표, 성악 지도 방안, 뉴스포츠 지도 방안 등 다양한 상반기 연수회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미래교육 실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과교육연구회별 특색 있는 연구 결과를 수업지원포털(수업나누리)을 통해 공유하고, 오는 8월 19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10시부터 운영되는 경북수업나눔축제를 통해 우수사례 일반화와 수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과교육연구회 교원들이 자발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 모델과 학습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전형지침 개선안' 발표

비대면 방식 유지, 1~3지망까지 선택 지원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팬데믹 해제를 기점으로 202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전형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의 경우, 코로나-19 이전(~2020학년도)까지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이후(2021학년도~2023학년도)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됐다.

비대면 전형 방식은 '참여가 편리하고 차선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지원하는 사립학교 수 제한이 없어, 최대 38교까지 지원 가능함에 따라, 중복 합격자가 급증하여 허수가 발생하고 경쟁률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 인근 사립학교가 있음에도 타 지역 당첨자에 밀려 원거리 사립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반면, 과거 코로나--19 이전 방식(대면 방식)은 낙첨 시 아이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낙첨 시 다른 사립학교로의 입학 기회가 없이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져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4월 사립초등학교 회장단과 면담하고,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사립초등학교 전형 방법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가장 선호하는 방식과 적정 수의 학교 지원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방식은 유지하되, 최대 3지망까지 선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202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전형 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전형지침 개선(안)에 대해 2023년 6월 말부터 행정예고(20일간)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사립초등학교에서 자체 부담하여 사립초등학교 전체가 공동이용 가능한 '통합 전산 추첨 프로그램'을 구축 후, 2023년 11월 예정인 202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전형(추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수업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누고 성장해요! 경기도교육청, 수업 나눔 '톡+톡 한마당' 개최

생애주기별 초등교사의 수업사례 나눔과 공감, 소통, 성찰의 장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나눔과 성찰로 학생 맞춤형 수업의 장을 확장하기 위해 '수업, 나눔이 성장이다! 톡+톡 한마당'을 27일 개최했다.

수원 KB인재니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수업사례 발표와 공유로 교사의 수업 나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업 전반에 대해 담론을 나누고자 마련했다.

1부 공유와 나눔의 시간은 ▲수업 나눔 참가자의 사연 소개 ▲발표자 4인의 주제별 수업사례 발표와 공유로 진행했다.

수업 나눔 발표자는 교사의 생애주기별 수업 고민을 다양하게 담아내기 위해 초등학교의 수석교사, 경력 교사, 신규 교사로 구성했다.

발표 주제는 ▲인공지능(AI), 학생들과 수업에서 만나다! ▲글쓰기와 기행문 수업 고민 이야기 ▲지학년 한글 수업, 스마트기기(태블릿)로 수업해도 좋을까? ▲3년 차 교사, 수업에 대한 고민 이야기로 이뤄졌다.

이어진 2부 성찰의 시간에는 ▲발표 내용 질의·응답 ▲공유 앱(패드렛)을 이용한 참석자들의 수업 고민 공유 및 해결 ▲참여 소감 나눔으로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수업의 고민을 서로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공유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수업 고민이 각각 다른 점을 이해하고 상호 격려하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도교육청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사 혼자 고민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수업 친구, 동학년 교사, 전교직원 학습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때 성장하는 수업 문화 정착과 학생 맞춤형 수업 내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수업 나눔 문화가 이번 자리를 계기로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지역공동체 상생 거점으로 거듭나는 전남 학교" 전남교육청,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를 지역사회 공동체의 상생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복합시설화를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7일 무안군 남악 복합주민센터에서 시·군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 업무관계자, 학교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체육관, 도서관, 문화시설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조성하는 것으로 교육부 공모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5년 간 도내 모든 시·군에 1교 이상, 총 20교 유치에 목표를 하고 있다.

오는 8월 14일까지 교육부 공모에 신청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7월 중 교육청-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및 희망지역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8월 초 공모사

업을 심사해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상생 거점 활용을 기대한다.

박종배/기자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부산시,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전국 사회적경제 주요 인사와 관계자, 방문객 등 5만여 명 이상 참여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부산시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인 부산(IN BUSAN)'을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민간 공동 박람회로,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별 사회적경제 정책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연계 행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적경제 축제이다.

'부산 사회적경제리서 좋다(Busan 사회적경제 is good)'라는 포어(슬로건)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 '개·폐막식' ▲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판매하고 공공·민간 컨설팅을 위한 '상품관' ▲ 중앙부처 및 부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등을 소개하는 '정책홍보관' ▲ 학술·정책·토론 등 사회적경제 연계 행사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 온라인 기획전, 온라인 관광(랜선투어), 찾아가는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6월 30일 오후 2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은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을 진행하여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참여기업 상품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로컬존, 패션뷰티존, 서비스존, 푸드존, 테크존, 예코존 등 6개의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자금 등 상담(컨설팅)을 위한 공공·민간 상담관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정책홍보관'은 17개 정부 부처 및 부

산시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 사회적경제정책관 ▲ 사례공유관(SOCIAL ECONOMY) ▲ 부산광역시 관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홍보와 시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응원하기 위해 ▲ '2030엑스포 특별관'을 마련했다.

아울러, ▲ 친환경·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무료 체험 프로그램 ▲ 참가객 물품을 기부하고 교환하는 물건 재사용의 상생 공간인 우리동네 상생마켓 ▲ 사회적경제 혁신과 성장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 '줄리안 쿼타르트' 초청강연 ▲ 퓨전국악, 민요·무용 등 문화공연 ▲ 사회적 관광(소셜 투어) 프로그램 ▲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부기를 이겨라 퀴즈, 구매 영수증 이벤트 등 사회적경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협동조합 통계 국제학술대회(코퍼런스),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공공구매 설명회, 학술·정책·토론 등 다양한 유익한 사회적경제 연계 행사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홈페이지 주요 행사 실시간 유튜브 중계, 온라인관광(랜선투어), 찾아가는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프로그램과 우수한 사회적경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e)-스토어 36.5', '비에스 숍(BS SHOP)', '11번가', '롯데온(ON)', 농협을 통한 생생소비(바이소셜) 온라인 기획전도 운영한다.

한편, 시는 행사장 내에 운영 지원센터 등 안내·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등 안전 인력을 배치하여 관람객 밀집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등 방역 안전 관리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망 구축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3일간의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훈 부산시장은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다양한 지역·계층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산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진안군, 빠망 TV 구독자 1만명 돌파

진안군 공식 유튜브 채널 빠망 TV 친근한 소통으로 지역 호감도 제고

진안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빠망 TV' 구독자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진안군은 27일 "군 마스코트 캐릭터 빠망이가 주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즐거움을 주고, 진안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수가 최근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빠망은 빨간 망아지의 줄임말이다. 지역 특산품인 홍삼의 빨간색과 말의 귀 형상을 닮아 이름 지어진 마이산의 망아지를 합성했다.

진안홍삼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맡고 있는 빠망은 2021년부터는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43년 방송 역사를 자랑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의 본선에 진출해 화제를 모았고, 제1회 캐릭터 올림픽에 참가해 통통 튀는 매력을 뽐냈다.

빠망의 인기와 함께 유튜브 채널의 구독

자 수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19년 1월 채널 개설 후 2년간 구독자 1,000명을 확보하는데 그친 군은 빠망을 전면에 내세운 첫 해에만 1,450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 2022년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여만에 8,000여명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진안군은 구독자 1만명 돌파를 기념해 6월 28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이벤트 콘텐트에 응원 메시지를 남긴 후 인증 스크린샷을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정우 진안군 기획홍보실장은 "빠망은 주민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진안군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진안의 멋과 맛, 향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여름방학,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으로 연극 바캉스 떠나자!

청소년극 누리축제 7.7~7.17 개최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1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덕군 청소년 예술 축제 베스트퍼포머상 수상작으로 의욕 없이 살아가던 용수가 권투를 접하고 겪게 되는 과정을 춤으로 녹여낸 작품이다.

7월 14일과 15일에 막 오르는 '연희도개비'는 인터파크 평점 9.8을 받은 인기작으로 전래 동화 '흥부놀부'와 '도깨비와 개암나무'를 각색한 인형극이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7월 17일에 공연되는 실시간 탈출극 '5=1'은 2021년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극작상과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교통신호를 당한 주연의 병문안을 간 친구들이 병실에 갇히고 방탈출을 해야 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본 공연 외에도 창작집단 거기가면, 연희공방 음악가쟁쟁은 공연 관람자와 창작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청소년극 누리축제'담당자는 "이번에 준비한 작품들이 영덕에선 자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극이고 모두 연극적으로도 뛰어난 작품들이라 기대를 전했다."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이며 예매는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가게는 세 여학생의 고민과 재기발랄한 상상

장문화/기자



대구 북구, 제4기 '행복북구' 블로그기자단 발대식 개최

대구 북구청은 6월 27일 오후 2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4기 '행복북구' 블로그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행복북구' 블로그기자단 10명이 선발됐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단체 기념 촬영, 기자단 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기자단으로 선정된 이들은 '행복북구' 블로그기자단으로서 긍지를 갖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자단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북구의 각종 행사, 축제, 주요 명소 등의 현장 취재와 후기 작성 등을 담당

하게 되며, 북구의 다양한 구정 소식을 주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알릴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블로그기자단은 우리 북구가 '행복북구'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키워드 '소통'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들"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블로그기자단의 폭넓은 활동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총 5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 중이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 소식 및 주요 정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023 기획공연 '프로젝트 국악대전 II' 개최 두 번째 무대 '명무 채향순의 가무악 향음향무 香音香舞' 공연

대전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가무악의 대모로 성장한 채향순의 무용세계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우리 지역 출신 전통예술인 초청 2023 프로젝트 국악대전, 두 번째 무대를 7월 1일 오후 5시 국악원 큰마당에서 개최한다.

국악원 '프로젝트 국악대전'은 우리 지역에서 전통 예술을 보존, 계승하며 대전 국악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국악인과 우리 지역 출신으로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전통예술인을 초청하여 선보이는 지역 예술상생 프로젝트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 국악대전은 소년시절 대전의 훌륭한 가무악 스승을 만나 대전을 기반으로 목보적인 무용세계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가무악 대모로 불리는 명무 채향순을 초청, 명무 채향순의 가무악 향음향무(香音香舞)를 선보인다.

향음향무(香音香舞)는 표면적으로는 향기로운 음악과 예술의 향이 널리 퍼지는 무용이라는 의미이지만 진정한 속뜻은 가(歌)와 악(樂)을 포함한 명무 채향순의 음악과 무용 등 채향순의 예술세계를 집대성한 작품으로 그 굳건한 뿌리가 대전의 국악계와 무용계로부터 원류를 가지로 있음을 표방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 소년기 세상에 나와 전통춤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원류의 탄생'을 시작으로 초월의 경지에 오른 승무로 안무구성한 '우주의 문', 조선 후기의 예술혼을 그린 '도리화가 桃李花歌', 난과 애환을 신명하는 노래와 풍물로 펼쳐지는 '사당각시', 채향순과 오랜 지음인 대한민국 명인들이 펼치

는 '지음(知音) 명불허전(名不虛傳)'과 대전무형문화재 제20호 살풀이춤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채향순은 제12회 전주대사습 무용부장원, 제22회 전국 전통공연 예술대회 대통령상, 2013 대한민국 무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대전무형문화재 제20호 살풀이춤 전승교육사이며, 대전시립무용단 제2대 예술감독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무용전공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세종전통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가무악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축제의 땅 대표 '진옥섭의 해설과 가천대학교 교수 이재성의 연출로 최종실류 소고춤 보존회 최종실의 특별출연과 채향순전통예술단, 전통창작타악그룹 유소, IN풍류 퍼포먼스, 김선희 라운예술단의 협업과 유인상 음악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명인들의 국악연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한민국 최고의 가무악 공연을 선사 할 것이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계자는 "대전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가무악계의 대모인 명무 채향순의 공연에 많이 시민들이 참여하여 우리 전통예술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 입장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대전시립연정국악원, 또는 공연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임무기간 연장계획 확정

임무운영 기간을 당초 '23년 말까지에서 '25년 말까지로 2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년 6월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을 당초계획인 1년('23.1월~'23.12월)에서 3년('23.1월~'25.12월)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내최초 달 뒷면 촬영 등 다누리의 관측결과가 우수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연료량도 여유가 있어, 국내·외 연구자들은 달 탐사 연구성과 확대를 위한 임무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당초계획된 1년의 임무운영 기간에는 제한된 범위의 자료획득만 가능하였으나, 연구자들은 임무기간 연장시 달 표면 촬영영상을 추가 확보하고, 자기장측정기·감마선분광기의 보완관측을 진행하는 등 성과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향후연은 임무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누리의 잔여 연료량과 본체 부품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5년까지 연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무제도 진입 후 다누리의 잔여연료량('22.12.27기준)은 약 86kg으로, 연간 연료사용량이 약 26~30kg인 것을 고려하면 2년의 임무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체 부품도 임무연장시 태양전지판 및 배터리가 노후되는 '25년에 일한 임무시간이 단축* 되는 것 외에는 '25년까지 임무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5년에는 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한 개기월식이

두 차례('25.3.14, '25.9.7)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누리의 배터리 방전으로 임무수행이 조기종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는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한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운영 기간 연장 및 향후 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다누리는 '23.12월까지 당초 계획한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연구,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연장된 기간 중('24~'25년)에는 영상획득지역을 확대하고 보완관측 및 추가 검증시험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다누리 임무운영을 통해 획득한 탐사자료는 '26년까지 달 착륙 후보지 3차원 지형 영상, 달 표면 원소·자원 지도 등을 제작하는데 활용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융합연구를 수행하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달, 화성, 소행성 등 우주탐사 시 생성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우주탐사 자료시스템도 '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선훈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임무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다누리'라는 이름 그대로 남김없이 달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누리가 연장된 기간까지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싱가포르 국영기관사이언스센터 부대표 및 스노우벤처 대표 방한

전국 사회적경제 주요 인사와 관계자, 방문객 등 5만여 명 이상 참여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기관인 사이언스센터 글로벌 배리 웡 반 텡(Barry Wong Ban Teng) 부대표와 싱가포르 국영기업 스노우벤처 노라자니 사이딘(Norazani Shaiddin)대표가 방한 기간 중 지난 22일에 한국로봇산업협회를 방문하여, 2023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벌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한국 로봇 기업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로봇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관이다. 회원사를 위해 R&D사업, 인력양성사업, 로보월드 및 국제협력사업, 표준 및 조사통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로봇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방문단은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다양한 로봇 기술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로봇산업협회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사이언스센터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Korea-Fest Singapore 2023` 페스티벌은 싱가포르내에서 한국 문화와 산업을 동남아시아 12개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한 페스티벌로, 과학기술(로봇, AI, 메타버스, 드론)의 혁신과 발전을 전시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과학 및 관련산업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이번 요청을 고려하고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기관 사이언스센터와 국영기업 스노우벤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와 한국 간의 로봇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물론, 코리아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한국의 로봇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중국내 유턴 한국기업 등 유치할 것"

중국 순방 첫 일정 베이징 주재 한국 경제단체 간담회서 기업유치 협조 부탁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국내 유턴 한국기업과 탈중국 외국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중국 순방 첫 일정으로 27일 베이징 내 한 식당에서 베이징 주재 경제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중국 방문 제1 목적은 투자유치"라며 "이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중국내 3개 기업을 방문해 투자 실행을 위한 협의 체결과 투자를 권유할 것"이라며 "충남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고, 사통팔달 산업기반 구축으로 투자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도는 아산만에 순환형 철도를 건설하고, 천안 종축장 부지 661만 1570m²(200만평)에 국내 최대의 첨단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진평택항을 물류환경개선과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중인 만큼 중국내 유턴 한국기업이나 탈중국

외국기업의 새로운 동지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3년 일본을 제친 후 2019년까지 7년 연속 1위를 유지한 바 있다.

2020년에는 대만(9.2%), 일본(8.6%)에 이어 3위(8.5%)로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2021-2022년 대만(8.9%)에 이어 다시 2위(7.4%)로 올라선 상태이다.

김 지사는 "충남은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중인 당진평택항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새로운 수출길을 찾는 데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기관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중국경제에 대한 동향을 청취하며 충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경제인단체 관계자들은 "호주와 싱가포르에서는 우수한 외국인을 인재로 육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며 "충남에서도 우수한 유학생들을 유치하려면 도내 대학 중 석사 이상 학위는 100% 영어로 강의하는 등 환경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은 현재 양자기술, 항공, 수소산업 등 미래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들도 중국의 트렌드를 읽어야 성공할 수 있다. 플무원 등 기업이 성공한 것은 중국의 트렌드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외국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문제 등 다방면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귀국하는 즉시 제안해 주신 내용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기관단체는 관계자는 김준기 코트라 북경대표처 부분부장,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북경대표처 지부장, 박기락 북경한국인회장, 윤석호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장, 김종문 중국 글로벌혁신센터장이다.

김원호/기자



구분	당초 임무계획기간('23)의 임무운영	임무연장 기간('24~'25)의 임무운영
고해상도카메라 (항우연)	달 착륙 후보지 43곳 촬영	50곳 이상의 달 착륙 후보지 추가 촬영 및 달 중위도(+60° ~ -60°) 지역 전체 촬영
편광카메라 (천문연)	달 중위도 지역(+60° ~ -60°)의 편광 영상 획득	달 고위도 지역(60°이상)의 편광영상 획득
자기장측정기 (경희대)	달 주변 자기장 측정자료 획득	보다 자세한 자기장 지도 및 달 내부구조 형성 획득을 위한 달 주변 자기장 보완관측
감마선분광기 (지자연)	감마선 방사선자료 획득 (원소 5종 확인 가능)	감마선 방사선 보완관측 (원소 10종 이상 확인 가능)
새도우캠 (ASU/NASA)	위도 81.5° 이상의 고위도 지역 내 주요 영구음영지역 촬영	위도 75° 이상의 전 지역 촬영
우주인터넷 탑재체(전통연)	자료전송 기술검증시험	탑재체 성능유지 검증시험 수행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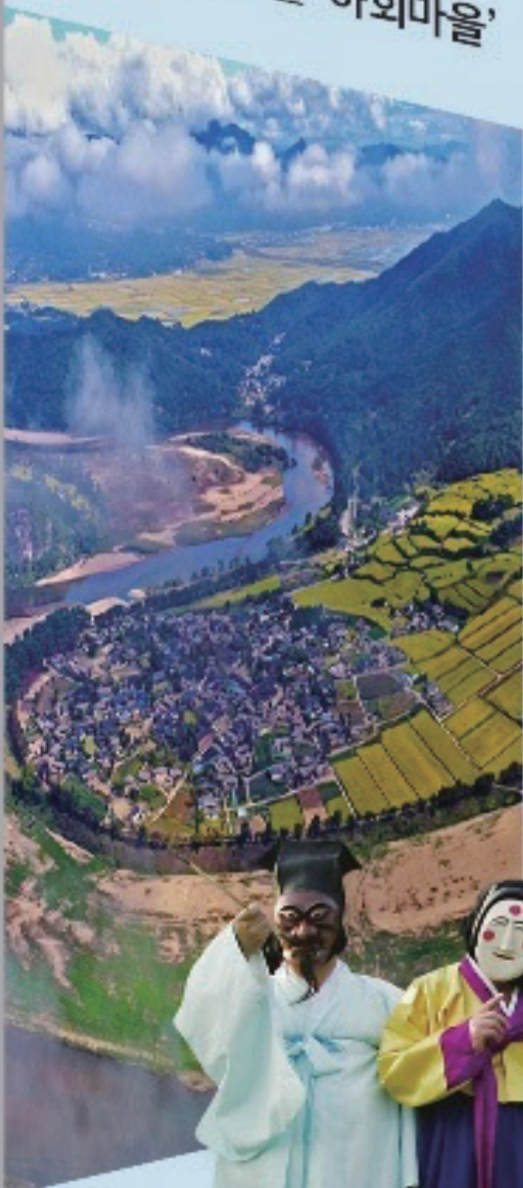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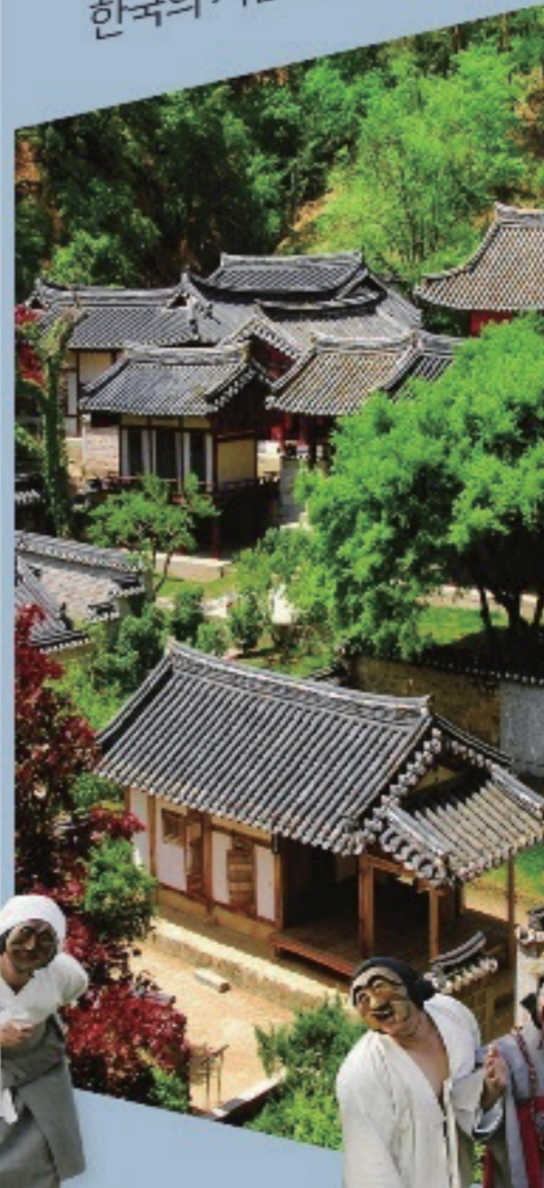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